

예술의 조너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VER STORY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COLUMN

아날로그의 아름다움을 디지털 시대에 되새기며

반갑습니다

정년퇴임 앞둔 부산시립극단 정순지 무대감독

2024 3월호 Vol.387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S W A N L A K E



PROGRAM

모차르트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작품299

브리치알디

베네치아의 사육제 작품78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外 수곡

예술감독 오충근
플루트 한여진
하프 황세희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13회 부산사랑
이태석
기념음악회

2024. 3. 23. SAT PM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문의 (사) 부산사랑
이태석기념사업회 www.johnlee.or.kr 051.637.0125

특별후원 **BNiK 부산은행** 후원 **S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부산광역시 **KNN**

무료관람 응모 **NAVER** 부산사랑이태석기념사업회 www.johnlee.or.kr 추첨 후 개별통지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본 음악회는 예술인 재능기부 공연입니다.

2024년 부산도슨트과정 5기 회원모집

장소 부산도슨트협회,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 2층 세미나실

회비 50만원(총12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03- 788953 부산도슨트협회

문의 회장 박덕남 010-6207-0767



교육목적

21세기 문화를 풍요롭게 할 '도슨트'라는 전문가를 양성시킴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미술, 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가교역할과 미술관, 갤러리, 각종 아트페어에 작품해설 및 안내를 하여 대중의 보다 쉬운 이해와 접근을 돕고자 한다. 그리하여 작가와 관람 대중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전과 도슨트협회 회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5기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회	월/일	교육내용	강사
1	4/15 (월)	개강식(30분)	박덕남 블루아트페어 위원장
		동시대미술 어떻게 볼 것인가?	구분호 부산대학교 예술학 박사,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관장
2	4/22 (월)	한번에 끝내는 서양미술사	양선아 (현)경성대학교 초빙교수
3	4/29 (월)	세계의 미술관 명화탐방(색채미학적 해석)	배선주 한솔미술공예협회 이사장
4	5/13 (월)	세계의 미술관 명화탐방(색채미학적 해석)	배선주 한솔미술공예협회 이사장
5	5/20 (월)	현대미술의 스타일	양준호 미술사박사, 평론가
6	5/27 (월)	근대 후기 인상파 현대에 살다 현대미술 속 아방가르드 한 붓, 마리 로랑생	우승우 (전)계명대학교 외래교수
7	6/3 (월)	전시관의 스토리텔러, 도슨트의 역할과 전달법	한이준 전문 도슨트
8	6/10 (월)	독일미학의 DNA를 읽다	안장혁 동의대학교 교수
9	6/17 (월)	위대한 예술가, 괴테를 만나다	안장혁 동의대학교 교수
10	6/24 (월)	나만의 명작을 찾아라(미술관 작품감상요령)	정연은 미술칼럼니스트, 부산시립미술관 도슨트, 평화방송 '화요명화산책' 진행
11	7/1 (월)	현대미술의 이해(이건희 컬렉션 중심으로)	김미애 한국국원대학교 외래교수, 교육박물관 학예사
12	7/8 (월)	실전 도슨트(스크립트 작성부터 해설까지)	김채빈 경남도립미술관 도슨트
		종강식(30분)	박덕남 블루아트페어 위원장

※ 월요일 저녁 6시30분~ 8시30분(2시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교육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은 상반기,하반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 상반기반, 하반기반(총 24강) 실무강의 10시간 이수 및 정회원 가입 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20. | 수 | 19:30

Concert I



Maestro | 김난새

예술감독 **김난새** 의

해설이 있는 톡!톡!톡!

실내악 페스티벌

2024. 3. 20. | 수 | - 23. | 토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3.21. | 목 | 19:30

Concert II



클라리넷 | 유지훈

피아노 | 박해림

첼로 | 이일세

바이올린 | 김서현

3.22. | 금 | 19:30

Concert III



바순 | 김용원

피아노 | 조민현

튜바 | 문지웅

오보에 | 윤은경

3.23. | 토 | 17:00


Concert IV



소프라노 | 구민영

테너 | 김동원

피아노 | 정은혜 강한솔

주최 |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 Birdhouse Creatives

티켓가격 | R석 2만원 S석(2층) 1만원 인터넷예매 |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전화예매 |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티켓할인 | 누림회원(50%), 학생·장애인·국가유공자·예술인패스(40%) 관람연령 | 8세이상 관람가

※ 학생증, 장애인, 국가유공자증 등 매표소 현장확인 후 티켓발권



봄을 알리는 포크 콘서트

🌸 Folk Concert 🌸



남궁옥분

2024. 3. 29^금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임지훈

주최.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드림컬처

인터넷예매.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전화예매.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티켓가격. Vip석 40,000원, R석(1층) 30,000원, S석(2층) 20,000원

티켓할인. 초·중·고, 예술인 패스권,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20%), 정기회원(30%) ※ 학생증, 장애인, 국가유공자증 등 매표소 현장확인 후 티켓 발권

예매바로가기



화이트데이
100%정
항상!

브런치 콘서트

L.O.V.E / B. Kaemfert & M. Gabler
Fly me to the moon / B. Howerd
첫사랑 / 김효근

Operetta Die lustige Witwe 中 Lippen schweigen / F. Lehár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中 입술은 침묵을 지키고) 등 다수

2024. 3. 14(목)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



주최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 www.bscc.or.kr
문의 | 607-6000(ARS1번)
티켓 | 균일 20,000원
(다과제공, 자유석)

2024

서부산권 문화의전당
을숙도문화회관

을숙도 예술 공감

부산지역 음악 예술인을 모십니다.

응모자격

음악분야 (피아노, 관악, 현악, 실내악, 성악, 합창, 국악, 실용음악 등) 에서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산지역 예술단체 및 개인

지원사항

티켓 수익금 전액 지급,
무료대관, 홍보일체

선발예정

20개 공연팀

접수기간

2024. 2. 26(월) ~ 3. 22(금) 18:00 마감

결과발표

2024. 3. 29.(금)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1)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청 고시공고란과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kakao games

지휘 진솔
연주 BGO(Busan Game Orchestra)

게임OST 페스티벌

2024. 04.13. SAT. pm 5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FLASIC 후원 kakao games

티켓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본공연 객석 중 일부는 문화소의계증을 위한 사회공헌 좌석으로 운영됩니다>

예매 및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4. 3월호 Vol.387



Column	10	아날로그의 아름다움을 디지털 시대에 되새기며
반갑습니다	12	정년퇴임 앞둔 부산시립극단 정순지 무대감독
세계의 콘서트홀 ①	14	베나로야 홀과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Cultural Issue	18	폐관 소식 들려온 학전 소극장, 다시 살아날까
Cover Story 1	24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Cover Story 2	26	2024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Preview	32	
Program Guide	41	
New Book	52	



아날로그의 아름다움을 디지털 시대에 되새기며



• 김성필 국립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교수

1990년대에 대학 시절을 보냈던 필자는 당시 일상의 많은 것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던 격동의 시기를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체험한 세대였다. 닷컴의 등장, PC통신과 전자메일의 대중화 등 각종 인터넷 문화의 태동과 더불어 무선호출기와 씨폰 같은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의 보급은 단순히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충돌을 넘어 그야말로 천지개벽과도 같은 경험으로 기억된다.

미술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며, 당시 대중적으로는 생소했던 애플사의 '매킨토시'와 같은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 장비를 변변한 튜토리얼도 없이 스스로 배우고 다뤄야만 했던 필자는 더욱이 그러한 기술적 과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지금이야 초등학생도 손쉽게 이미지를 합성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정도로 각종 디지털기와 소프트웨어가 일반화되었지만, 대학 입학 전까지만 해도 그림이란 당연히 붓과 물감으로만 그려야 하는 줄 알았던 나에게 그러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내심 적지 않은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당시 본의 아니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과도기를 경험하며 수작업과 디지털 작업을 모두 익힐 기회를 가

질 수 있었던 것은 나 스스로에게 실로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세대는 또 한차례 바뀌고, 필자는 현재 대학에서 드로잉과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과목 등을 가르치며 이전과는 또 다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디자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창조적 작업환경이 디지털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시각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를 활용하는 가상의 작업이 전통적인 채색도구를 다루는 것보다 더 익숙한 방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 호환성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를 활용한 자동 이미지 생성 등의 편리함은 디지털 작업의 큰 장점이자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아무리 편리하고 화려한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연마된 기술과 축적된 경험 그리고 물적 감성에 의한 재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위 '깊이 있는' 작품을 창조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수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요즘의



미술학도들을 설득하는 것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이미 디지털 작업에 친숙해지면서 수작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화지에 물감으로 채색을 하다가 원치 않는 붓질이 되었을 경우, 자기도 모르게 왼손으로 Ctl+Z(실행 취소 단축키)를 허공에 눌러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작금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수작업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도전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물론,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가지 모두가 현대 예술의 풍요로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자명하다. 일찍이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한(Herbert Marshall McLuhan, 1911~1980)은 “뉴미디어는 올드미디어와 끊임없이 융합과 경쟁을 반복하며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생태계를 형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맥루한이 미래를 예측했던 과거의 시점보다 현재의 디지털 시계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상을 압도하고 있다. 자칫 디지털 진화의 관성에 휩쓸려 아날로그의 아름다움을 간과하게 되는 일이 오늘

날의 학생들에게는 부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술적 가치를 왜곡 없이 보존하고, 인류 유산의 참된 의미를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화실에서 풍기는 매캐한 흑연 냄새와 화방의 짝사랑한 유화물감 냄새는 나에게 묘한 자극을 준다. 그 향기들은 나에게 창조적 영감을 주었고, 아날로그 예술의 아름다움 그 이상의 무언가를 깨우치도록 인도했다.

디지털 도구의 발전과 AI 기술의 대중화는 현대 예술에 많은 혁신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가 수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당위성을 지닌다. 수작업은 예술가의 손과 마음이 직접 닿는 과정으로, 디지털 작업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감성과 정서를 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수작업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작가적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도 밤낮 없이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이 점을 명심한다면, 디지털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자신의 작품에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년퇴임 앞둔 부산시립극단 정순지 무대감독

• 이성규 연출가

한때 부두연극단에서 함께 작업한 적이 있던 후배 연출가 정순지가 부산시립극단 무대감독직에서 정년퇴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문화회관으로 곧장 찾아갔다.

2월 8일, 설 연휴 하루 전이었는데 사람도 없고 주변이 조용하고 한적했다.

Q 부산시립극단 창단 원년 멤버였는데, 그동안 정년퇴직한 사람이 박찬영, (고)이돈희, 정마린(정행심) 다음에 4번째가 되는군요. 그동안 중도 하차한 단원들도 몇 있고 전임 연출, 예술감독도 여러 명 바뀌어서 많은 변화와 풍상(?)을 겪은 걸로 아는데 지금 기분은 어떻습니까?

A 흥가분하다고 할까요? 시원섭섭하다고 할까요? 인생의 황금시기를 이곳에서 보냈으니 큰 짐을 벗은 기분입니다. 풍상이라고 하셨나요? 연극이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하하.

Q 처음에 총무로 발령받았다가 그 후에 무대감독으로 직책이 바뀐 걸로 아는데 스태프진이 없는 부산시립극단의 구조로 봐서 혼자서 여러 일을 처리한다고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A 예술감독 외에는 정단원이 전부 배우이다 보니 총무일 때부터도 무대감독 일, 행정업무, 잡다한 살림살이 등을 도맡아서 해야 했으니 좀 힘들었죠. 조직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연출을 꿈꾸던 저에게 한때 회의가 들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극단에도 행정담당 직원, 무대감독보, 훈련장 등 인력이 보충되었으면 합니다.

Q 그동안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지금은 좀 어때요?

A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이젠 완치가 되지 않는 지병이라고 살아야 합니다. 척추에 석화가 생겨 혈관과 신경을 누르니 자주 통증이 옵니다. 그동안 여러 방식의 치료를 병행해서 지금은 견딜만 합니다. 작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Q 그런 와중에도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더군요. 논문 제목이 ‘연극 제작에 있어서 무대감독의 역할 연구’라 무척 흥미가 갑니다. 어떤 내용이죠?

A 부산시립극단 제3회 정기공연이었던 <리어왕>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의 직무 수행 과정을 연구한 논문인데 작업 과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재를 대입한 논문입니다. 무대감독에 관한 논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하하.

Q 부산의 연극현장에서선 ‘조연출’ ‘기술감독’ ‘무대감독’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이나 시스템이 없어 무대감독이 조연출도 하고 기술감독 일도 하고, 잡다한 뒤치다꺼리하는 형태로 운용되곤 해요. 26년 동안 전문 무대감독 일을 하였고 석사논문도 ‘무대감독’에 대한 것을 썼으니 앞으로 부산 연극 현장에 노하우를 전수할 생각은?

A 무대감독은 연출을 보좌하면서 같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리더로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부산 연극 현장에도 개념과 시스템이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강좌를 개설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후배들을 지도할 생각이 있습니다.

Q 고맙군요. 퇴직(6월 30일)하면 부산 연극 현장에 복귀할 마음이 있습니까?

A 예. 저는 늘 평생 연극인이라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연출 작업을 계속해보고 싶은데...; 그동안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탐색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몸을 좀 추스르고 6월 말에 퇴직을 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몇 개월 해외 여행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Q 앞으로 어떤 작품을 연출해 보고 싶은지?

A 명작 소설을 각색하여 문학성이 짙은 작품을 공연하고 싶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지스킨트의 ‘좁머씨 이야기’,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을 연출해보고 싶습니다.

Q 부두연극단이 올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흩어졌던 단원들도 오랜만에 모여 기념식도 하고 기념 공연도 여러 편 공연할 계획으로 있는데 순지씨도 참여하여 역할을 좀 해주시죠?

A 예.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시면 언제든 열심히 돕겠습니다.

Q 은퇴 기념으로 작품을 연출한다고 들었는데 작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을 각색한 작품으로,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을 ‘땅’이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해, 과도한 욕망의 끝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탐욕), 진(화), 치(어리석음)에 끌려든 인간을 풍자하여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관객에게 반문케 하려는 연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Q 공연 일시와 장소는 어디입니까?

A 네. 공연은 3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이며 공연 장소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입니다.

대답은 이렇게 해서 끝났다. 조금의 휴식 기간을 가진 후 부산 연극 현장에서 다시 뜨겁게 만나길 기대하며 그 사이 건강을 좀 더 회복하길 바란다.



베나로야 홀과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상주 오케스트라 없이 콘서트홀만 따로 우뚝 설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의 공연장은 예외 없이 이렇다. 미국의 경우는 동부의 주요 도시들이 대표적인데 위에서부터 보스턴 심포니 홀(보스턴 심포니), 링컨센터 내 데이비드 게펜 홀(뉴욕 필하모닉), 버라이즌 홀(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케네디 센터(워싱턴 내셔널 심포니)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미서부 역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로 이어지는 주요 도시들도 마찬가지이다. LA 필하모닉이 상주해 있는 윌트디즈니 콘서트 홀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가 상주해 있는 데이비스 심포니 홀이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호에서는 커피 도시로 더 잘 알려진 시애틀의 콘서트홀 베나로야 홀과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베나로야 홀

베나로야 홀(Benaroya Hall)은 시애틀 다운타운 가장 핵심에 있는 블록 전체를 차지하는 공연장이다.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퍼블릭 마켓과도 인접해 있다. 유니언 대로를 따라 상업지역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반대편으로는 계단식 정원의 형태로 공공 공간을 제공하며 도시의 공연장으로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는 2개의 공연장이 있는데 2,479석 규모의 시드니 마크 테이퍼 재단 오디토리엄(S. Mark Taper

Foundation Auditorium)과 원형의 새뮤얼&알테아 그랜드 로비(Samuel & Althea Grand Lobby)가 베나로야 홀의 중심에 있다. 로비의 원통형 볼룸은 주변 건물들의 직선형 형태와 구분된다. 원형에 가까운 관절을 지닌 통창으로 둘러싸인 로비는 시애틀 미술관과 함께 도시 스카이라인을 포함한 뛰어난 전망을 제공한다. 또한 야간의 유리 표면은 거리 풍경을 밝히는 거대한 랜턴의 효과를 주고 있다.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3개의 거리에서 출입구가 있는 보잉 컴퍼니 갤러리(The Boeing Company Gallery)는 베나로야 홀의 다양한 구성 요소-시드니 마크 테이퍼재단 오디



1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2 베나로야 홀 내부



Benaroya Hall



3 베나로야홀 전경

토리엄과 일슬리 볼 노드스트롬 리사이틀 홀(Illsley Ball Nordstrom Recital Hall), 매표소, 상점, 지하 차고 및 도심 시애틀 교통 터널을 연결한다. 보잉 컴퍼니 갤러리는 공연 여부에 관계없이 평일에 문을 열어, 그 공간은 외부 로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낮 동안 도시의 거리 풍경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직사각형의 오디토리엄은 수준 높은 음향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발코니 전면의 안쪽, 유리 천장 패널, 홀을 둘러싸고 있는 표면의 어두운 나무 색상은 관객에게 시각적, 청각적으로 무대에 가깝게 연결하면서 홀에 친밀감을 준다. 이렇듯 좌석 배치는 효과적인 시선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게 연구되었다. 객석 1층은 가파르지만,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결되어 있어 무대와 의 친밀한 연결을 향상시키면서 시선을 최적화한다. 측벽을 따라 있는 박스 좌석은 무대를 향해 있는데, 홀을 가로질러 반대편 벽으로 향하는 형태가 인상적이다. 프로시니엄의 높이도 적당하며 조명도 그 효과를 강조하여 관객이 무대와 공연자들에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

거대한 나무와 회반죽 표면의 내장재로 되어 있는 홀의 전통적인 모양은 뛰어난 음향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 관현악 공연은 적정 잔향인 2.5초 내외의 시간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소리를 반사하고 가능한 적게 흡수하기 위해 무겁고 밀도가 높은 표면을 가진 흡음재 면적을 필요로 한다. 벽에 있는 나무 판넬은 각각 다른 크기의 작은 판넬로 세분화되어 있다. 게다가 공기 중의 소리나 주변의 거리, 건물을 가로짓는 교통 터널에서 지속적으로 울리는 소음과 진동을 완충하기 위해 지면에 고무패드를 만들어 공연장 내부로 전달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위에 세워진 LG아트센터가 이처럼 고무패드를 넣어서 시공한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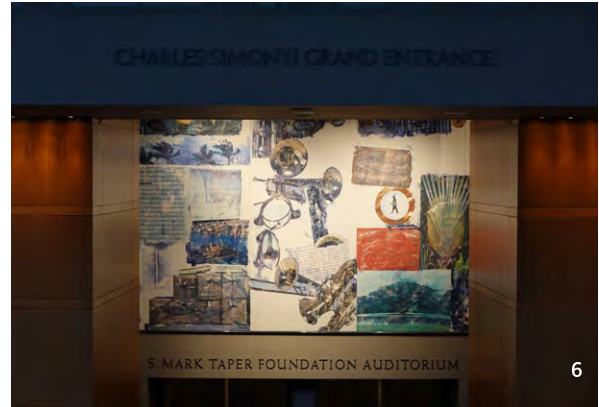
536석의 일슬리 볼 노드스트롬 리사이틀 홀은 메인 홀의 보완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앙상블과 솔리스트들의 공연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 사회의 음악인들에게 합리적이며 음향적으로 우수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리사이틀 홀은 부지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홀의 음향은 소리를 확산시키는 삼각형 표면

을 가진 조각 모양의 평면으로 만들어졌고 무대와 바닥은 체리 나무로 되어 있어 연주자들에게 시각적, 음향적으로 따뜻한 환경을 제공한다.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시애틀 심포니(Seattle Symphony)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둔 오케스트라이다. 1998년부터 베나로야 홀에 상주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또한 시애틀 오페라(Seattle Opera)를 연주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1903년 해리 웨스트가 지휘를 맡으면서 첫 번째 공연을 열었다. 처음엔 시애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으나 1919년,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시애틀 심포니는 1947년에 이르러 타코마 필하모닉과 합병하여 퍼시픽 노스웨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결성했다. 연주는 시애틀, 타코마, 올림피아에서 열렸고, 지휘는 칼 브릭큰과 유진 린든이 번갈아 연주했다. 하지만 두 명의 지휘자와 두 단체로 구성된 체제는 오래가지 못하고 1948년 다시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분리,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1985년 음악감독으로 임명된 제라드 슈바르츠는 20세기 작곡가들, 특히 발굴되지 못하였던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



6 시드니마크 테이퍼 재단 오토리엄 입구

들을 공연하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낙소스 레이블에서 100개 이상의 상업적인 녹음을 했고 1990년에 이르러서는 그 레미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성과를 얻기도 한다. 2011-12 시즌부터 15번째 음악감독으로 임명된 루도비치 몰로토프는 재임 기간 동안, 오케스트라 자체 녹음 레이블인 '시애틀 심포니 미디어'를 시작했다. 또한 오케스트라 자체 작곡가들을 육성하여 시애틀에 기반을 둔 작곡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2014년 풀리처 음악상과 2015년 그래미 현대 작곡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공공 예술이 도입된 베나로야 홀

공공 예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국에 의해 1973년에 시작된 시애틀의 공공 예술 프로그램은 베나로야 홀 건설 비용의 1%의 자금으로 로버트 라우센버그(1925-2008)와 데일 치홀리(Dale Chichuly)의 작품을 완성했다. 1998년 9월 12일, 시애틀은 시애틀 심포니의 갈라 콘서트와 미국 근현대를 대표하는 작가인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유리 예술가 데일 치홀리가 설치한 작품을 공개하는 행사로 베나로야 홀의 성대한 개장을 축하했다. 이 장소에는 로버트 무라세(Robert Murase, 1938-2005)가 디자인한 공식 국가 기념관인 추모의 정원(Garden of Remember)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 그리고 쿠웨이트,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에서 전사한 8,000명 이상의 워싱턴 주민들을 위해 헌정됐다.



4 일슬리 볼 노드스트롬 리사이틀 홀 입구 5 새뮤얼&알테아 그랜드 로비



뮤지컬 <지하철 1호선> 2008 사진제공: 극단 학전

폐관 소식 들려온 학전 소극장, 다시 살아날까

•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지난해 11월 중순 공연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 왔다. 김광석 들국화 유재하 강산에 동물원 안치환 등 통기타 가수들의 라이브 콘서트 무대이자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등을 통해 설경구 김윤석 황정민 장현성 조승우 같은 배우들을 배출한 학전 소극장이 폐관된다는 것이었다.

폐관 소식이 알려지자 학전 소극장은 극단 학전 창립 33주년인 2024년 3월 15일까지만 운영한다는 것과 함께 남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당시 공연 중이던 <지하철 1호선>(2023년 11월 10일~12월 31일)에 이어 <제2회 김광석 노래상 경연 대회>(2024년 1월 6일), 아동극 <고추장 떡볶이>(1월 12일~2월 24일)를 올린 뒤 극단 학전과 인연이 깊은 가수들과 배우들이 함께하는 <학전, 어게인 콘서트>(2월 28일~3월 15일)가 이어진다.

학전 소극장의 폐관 결정 배경에는 오랫동안 지속된 재정난도 있지만 김민기(73) 학전 대표의 암 투병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김 대표는 위암이 간암 4기로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대표

사진제공: 김민기 별정사업추진위원회

김 대표에게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가수, 연출가, 프로듀서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무엇보다 1970~1980년대 포크음악 싱어송라이터로서 ‘아침 이슬’을 필두로 ‘친구’ ‘상록수’ ‘작은 연못’ 등 수많은 저항가요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독재 정권이 금지한 그의 노래들은 오히려 불멸의 생명력을 가지게 됐다. 여기에 공장, 공사장, 농촌, 탄광촌, 양식장 등에서 노동자로 일한 그의 삶은 노래의 의미를 강화했다. 하지만 그는 저항가요만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거나 주변에서 신화적 존재로 추앙받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

어쩌면 김 대표가 ‘김민기답게’ 활동한 것은 1991년 3월 15일 대학로에 학전 소극장을 개관하면서부터 아닌가 싶다. 한자로 배울 학(學)에 밭 전(田) 자를 쓰는 학전 소극장은 그가 뿌리내린 일터였다. 일각에서는 ‘비판적 시대정신’으로 불리던 그가 소시민적 삶에 안주했다며 비판했지만, 그는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피력했다.

그는 김광석 들국화 유재하 강산에 동물원 안치환 등 통기타 가수들의 라이브 콘서트 무대로 학전 소극장을 내줬다. ‘가객’ 김광석(1964~1996)이 1,000회 공연을 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김광석 타계 이후 김광석 추모사업회 회장을 맡았던 김 대표는 2008년 기일에 맞춰 극장 앞마당에 김광석을 브론



학전 소극장 입구와 김광석 부조 노래비 ©정지영

즈 부조로 새긴 노래비를 세우는 한편 ‘김광석 노래 다시 부르기’ 행사를 주최해 지금까지 열어 왔다. 2023년에는 김광석의 음악 정신을 이어받은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김광석 노래상 경연 대회’를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로 꼽히는 김 대표지만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꺼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1993년 자신이 작곡한 39곡을 직접 부르고 녹음한 전집 음반을 낸 것은 적자가 누적되던 학전 소극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이 음반은 후대에 큰 유산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김 대표가 오랫동안 전착했던 노래극을 발전시켜 다양한 뮤지컬을 만드는 재정적 토대가 됐다.

대표작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창작 뮤지컬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 수입 라이선스 뮤지컬이다. 독일 아동·청소년 전문 극단 그립스에서 폴커 루트비히 대본과 비르거 하이만 작곡으로 1986년 만든 뮤지컬 <1호선>을 1994년 우리말로 변안했다. 하지만 원작을 과감히 해체하고 1990년대 서울의 다양한 면면을 녹여냄으로써 한국의 뮤지컬로 재창조해 성공했다.

<지하철 1호선>은 초연 이후 인기를 얻자 아예 전용관을 마련해 오픈런 공연(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계속 공연하는 것)에 들어갔다. 년별 퍼포먼스가 아닌 뮤지컬의 오픈런 공연은 국내에서 <지하철 1호선>이 처음이다. 독일에서보다 국내에서 더 큰 인기를 끈 <지하철 1호선>은 2000년 공연 횟수가 1,000회를 돌파했는데, 원작자들이 김민기 버전

의 작품성을 인정해 더 이상 저작권료를 받지 않기로 해 화제가 됐다. 극단 학전은 2008년 <지하철 1호선> 4,000회를 끝으로 공연을 중단했다가 10년 만인 2018년 재개하면서 원작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학전 소극장 앞마당에 루트비히와 하이만의 브론즈 흉상 부조를 세웠다.

한국 뮤지컬계에서 <지하철 1호선>의 장기공연은 학전 소극장을 회생시키는 것은 물론 뮤지컬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특히 소극장 뮤지컬에 라이브 연주를 도입한 것, 원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한 것, 출연진과 서면계약을 하고 러닝개런티 제도를 도입한 것 등은 한국 뮤지컬계에서 처음이었다. 이런 풍토에 김 대표의 독특한 연기 지도가 겹치면서 극단 학전은 배우 사관학교가 됐다.

또한, 학전 소극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김 대표의 헌신이다. 젊은 시절 탄광촌에서 일할 때 만난 아이들의 일기를 바탕으로 1987년 노래극 <아빠 얼굴 예쁘네요>을 만들 정도로 그는 오래전부터 어린이·청소년극에 남다른 가치를 뒀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어린이·청소년극을 선보인 것은 2004년 ‘학전 어린이 청소년 무대’를 기획하면서부터다. 그립스 극단의 작품을 한국 실정에 맞게 재창작한 <우리는 친구다> <고추장 떡볶이> <슈퍼맨처럼!> <무적의 삼총사> <모스키토> <굿모닝 학교> <복서와 소년> 등은 대표적이다. 이들 작품은 한국 어린이극에선 보기 어려운 부모의 이혼 문제, 학교 폭력, 장애아에 대한 차별 문제, 게임 중독 등 현실을 설득력 있게 그려 호평받았다. 문제는 김민기 대표가 어린이·청소년극에 전착할수록 학전 소극장의 적자 폭은 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적자는 그동안 김민기 대표가 자신의 저작권료를 투입해 메워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학전 소극장의 폐관 소식이 들려오자 각계각층에서 ‘학전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학전 무대에 섰던 배우와 가수들이 의기투합해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론을 움직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나서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학전 소극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임대를 통해 ‘학전’의 이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민기 대표와 문체부, 예술위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학전 소극장이 완전히 폐관을 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대표가 추구해온 학전의 본질을 얼마나 훼손 없이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4년도 하반기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대관 안내

대상

- 부산문화회관 : 공연장(대/중), 전시실
 - ※ 챔버홀은 시설 보수 공사로 인해 24년 8월까지 대관 불가,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대관 공고 예정
 - ※ 사랑채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부산시민회관 : 공연장(대/소), 전시실
- 휴관일 안내 :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공연장과 전시실 대관 불가
 - ※ 셋업, 철수, 운영 등 작업 불가(장기 대관 시 휴관일은 대관료에 미포함)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중복 접수 불가

대관내용

- 대관기관 :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6개월)
- 가능일자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대관공지사항 참조
 - ※ 부산문화회관(www.bscc.or.kr), 부산시민회관(www.bscc.or.kr/citizen)
- 접수기간 : 2024년 3월 4일(월) 09:00 ~ 3월 17일(일)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bscc.or.kr/rental)
 -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대관신청
 - ※ 이메일, 우편, 방문 신청 불가
- 결과회신 : 2024년 3월 중(예정)

대관심의 우선기준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공연(행사) 및 전시는 대관 제외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결과 회신

사용료 납부

- 계약금(대관료의 2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 잔금(대관료의 80%) : 대관 예정일 30일 전까지(대극장의 경우, 공연일 60일 전)
 - ※ 사용예정일이 대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계약금과 잔금 동시에 납부
 - ※ 납부기한 내 대관료 미입금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취소이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
051-607-6056, 6051
- 부산시민회관 시민예술팀
(공연장) 051-630-5214, (전시실) 051-630-5211



INVITATION TO THE ARTS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C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H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O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E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E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S SM아트홀 1600-1602



SUN	MON	TUE	W
<p>마포아트센터</p> <p>부산문화회관이 보다 더 나은 시설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 무대/시설 점검 및 개선 공사로 공연장별 휴관에 들어갑니다.</p> <p>·챔버홀: 2월~8월 ·사랑채극장: 1월~6월</p>			
<p>3</p> <p>쇼팽으로 만나는 지브리 앙상블 17:00 대 6만5천원·5만5천원·4만5천원·3만5천원 스톱프뮤직(02-2658-3546)</p>	<p>4</p>	<p>5</p> <p>◆ (재)부산문화회관 2024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19:30 대 6만원·4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70회 감성 콘서트 '새봄맞이 콘서트' 19:30 중 12만원·8만원·5만원·2만원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070-7787-3086)</p>	<p>2024 BSO 솔로이스츠 '목관 5중주&금관 5중주' 중 전석 2만원/(사)부산심</p>
<p>10</p>	<p>11</p>	<p>12</p> <p>2024 교보 노블리에 콘서트 19:30 대 영앤앳섬(주)(02-720-3933)</p>	<p>◆ (재)부산문화회관 2024 시리즈 II '연광철&선우' 대 6만원·4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7</p>	<p>18</p>	<p>19</p> <p>◆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3회 정기연주회 '펠릭스'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한동일 김설화 피아노 콘서트 19:30 중 5만원·4만원·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p>	<p>KNN방송교향악단 푸치니 오페라 길라 콘서트 19:30 대 10만원·7만원·5만원 KNN방송교향악단(800-222-2222) 바리톤 김길수 독창회 19:30 중 김길수(010-7294-7294)</p>
<p>24</p> <p>이안오케스트라 클래식 콘서트 15:00 중 이안오케스트라(010-2290-9463)</p>	<p>25</p>	<p>26</p> <p>루보체 레이다스 싱어즈 제3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초대/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가곡의 왕 'Franz Schubert' 중 와이제이클래식스(010-7294-7294)</p>
<p>31</p> <p>아르떼 유스 창단 기념 연주회 17:00 중 초대/더뉴앙상블(070-8095-9426)</p>			

ED	THU	FRI	SAT
		1	2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연극 '돌아온다' 19:30</p> <p>중 5만5천원-3만3천원(14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야지무스오페라단 신춘음악회 'The Best of Opera' 15:00</p> <p>대 3만원-2만원(예매 시 20% 할인) (사)야지무스오페라단(010-9550-4649)</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연극 '돌아온다' 15:00</p> <p>중 5만5천원-3만3천원(14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6	7	8	9
<p>체임버 시리즈 I '19:30</p> <p>포니오케스트라(621-4577)</p>	<p>2024 BSO 솔로이스츠 체임버 시리즈II '현악 6중주&현악 8중주' 19:30</p> <p>중 전석 2만원/(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p>	<p>❖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_실내악 시리즈II '봄 인사' 19:30</p> <p>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이서림 타악 독주회 19:00</p> <p>중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이서림(010-9678-0130)</p>
13	14	15	16
<p>4월 월드 콩쿠르 우승자 '메퀀 듀오 콘서트' 19:30</p> <p>07-6000)</p>	<p>❖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화이트데이 브런치 콘서트' 11:00</p> <p>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극단 제76회 정기공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19:30</p> <p>중 2만원-1만원(12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마티네 콘서트 I 11:00</p> <p>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극단 제76회 정기공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19:30</p> <p>중 2만원-1만원(12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제50회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17:00</p> <p>대 유나이티드문화재단(02-598-9963)</p> <p>❖ 부산시립극단 제76회 정기공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17:00</p> <p>중 2만원-1만원(12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0	21	22	23
<p>니 서거 100주년 기념 30</p> <p>3만원 (050-9568)</p> <p>9:30 (7268)</p>	<p>❖ 부산시립극단관현악단 제224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 김경수 취임연주회 '내일' 19:30</p> <p>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에델현악사중주단 창단 5주년 기획공연 'Edel Plus' 19:30</p> <p>중 에델현악사중주단(010-7234-3996)</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9회 정기연주회 '고전적 낭만' 19:30</p> <p>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13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19:00</p> <p>대 초대/(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p> <p>❖ (재)부산문화회관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II '오즈의 마법사' 17:00</p> <p>중 3만원-2만원(5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7	28	29	30
<p>bert' 19:30</p> <p>10-6307-6885)</p>	<p>제1243회 MBC 목요일음악회 19:30</p> <p>중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760-1494)</p>	<p>트리오 피아체 연주회 '왈츠와 변주곡' 19:30</p> <p>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17:00</p> <p>중 전석 3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
<p>전시실</p> <p>빛 따라 풍경 속으로 3월 12일(화)-3월 17일(일) 전시실1</p> <p>미술교사 6인 [손수X아트] 3월 19일(화)-3월 23일(토) 전시실1</p> <p>한국서가협회 부산지회 초대작가 현암 이동길 선생 고회전 3월 26일(화)-3월 31일(일) 전시실1</p>	<p>포토페밀리 회원전 3월 26일(화)-3월 31일(일) 전시실2</p> <p>·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00</p>		
<p>3</p> <p>2023 어린이 스토리 미술쇼 13:00, 15:00 소 아트원(1544-1555)</p>	<p>4</p>	<p>5</p> <p>제6회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시상송대회 14:00 소 (사)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988-2427)</p>	<p>6</p> <p>3661지구 로타리 가족음악 대 부산문화(1600-1800)</p>
<p>10</p>	<p>11</p>	<p>12</p>	<p>13</p>
<p>17</p>	<p>18</p>	<p>19</p>	<p>20</p>
<p>24</p> <p>가족뮤지컬 '이벤저스 라이브' 11:00, 14:00 대 (주)전공이엔티(626-1722) 제19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매직 판타지아' 11:00, 15:00 소 (사)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조직위원회(626-7002)</p>	<p>25</p>	<p>26</p>	<p>27</p>
<p>31</p> <p>2024 최현우 ANSWER 13:00, 17:00 대 8만8천원/6만6천원/(주)하늘이엔티(1688-6675) 뮤지컬 '알사탕' 11:00, 14:00, 16:00 소 전석 6만원/(주)쌍크브릿지(1533-7244)</p>			

ED	THU	FRI	SAT
		<p>1</p> <p>제105주년 3.1절 기념식 10:00 대 부산광역시(888-1854)</p>	<p>2</p> <p>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FESTA 17:00 대 8만8천원·6만6천원·4만4천원 아트인뮤직(02-525-4420) 2023 어린이 스토리 마술쇼 13:00, 15:00 소 아트원(1544-1555)</p>
5 회 18:00 (3)	7	8	9
3	14	15	16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19:30 대 10만원·8만원·5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14:00 대 10만원·8만원·5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0	21	22	23
			<p>가족뮤지컬 '이벤져스 라이브' 11:00, 14:00, 16:30 대 쉼전공이엔티(626-1722) 제19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매직 판타지아' 14:00, 17:00 소 (사)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조직위원회(626-7002)</p>
7	28	29	30
			<p>2024 최현우 ANSWER 15:00, 19:00 대 8만8천원·6만6천원/썬하늘이엔티(1688-6675) 뮤지컬 '알사탕' 11:00, 14:00, 16:00 소 전석 6만원/썬크브릿지(1533-7244)</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극림발레단 백조의 호수

일시 3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3월 16일 토요일 오후 2: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좌석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우아한 발레의 완벽한 컬래버레이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음악으로 꼽히는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 악마 로트바르트의 저주에 걸려 낮에는 백조로 밤에는 사람으로 변하는 오데트 공주와 그와 사랑에 빠진 지그프리트 왕자의 운명을 거스르는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로, 잊히지 않는 낭만적인 이야기와 매혹적인 안무로 전 세계 발레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백조의 날개 짓을 본뜬 우아한 안무와 신비로운 호수에서 백조들이 선보이는 입체적인 군무는 ‘발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 불릴 정도로 시대를 초월한 명작 중 하나로 꼽힌다.

차이콥스키의 첫 번째 발레음악인 ‘백조의 호수’는 1877년 볼쇼이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그러나 당시 발레리나의 기량 부족과 엉성한 안무, 형편없는 연출로 초연은 실패로 돌아갔다. 초연의 치참한 실패는 차이콥스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고, 이후 그의 두 번째 발레음악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작곡하기 전까지 차이콥스키는 13년간 발레음악을 작곡하지 않았다.



주역 캐스팅

3월 15일(금) 조연재(오데트&오딜), 박종석(지그프리트 왕자), 이재무(로트바르트)
3월 16일(토) 심현희(오데트&오딜), 하지석(지그프리트 왕자), 김기완(로트바르트)

* 위 캐스팅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잊혀진 ‘백조의 호수’를 되살린 이는 ‘클래식 발레의 아버지’라 불리는 러시아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와 공동 안무가 레프 이바노프였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으로 이미 차이콥스키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던 프티파가 차이콥스키 사후 과감한 수정을 거쳐 재상연하면서 ‘백조의 호수’는 비로소 그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후 ‘백조의 호수’는 전 세계 발레단의 주요 레퍼토리가 되면서 다양한 안무 버전으로 선보이고 있다.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의 국립발레단 대표 클래식 레퍼토리

이번에 만나는 ‘백조의 호수’는 국립발레단이 5년 만에 부산에서 선보이는 국립발레단의 대표적인 클래식 레퍼토리로,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을 대표하는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안무한 작품이다. 국립발레단은 2001년부터 유리 그리고로비치 안무 버전으로 ‘백조의 호수’를 선보이면서 올해 10번째 시즌을 맞았다.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의 ‘백조의 호수’는 왕자의 배신에 절망한 오데트 공주가 호수에 빠져 죽자 왕자 역시 뒤따라

죽는 비극적인 엔딩의 일반적인 버전과 달리 진정한 사랑으로 운명을 이겨내는 해피엔딩으로 관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그는 인간에게 내재된 선과 악의 본성을 표현하고자 악마 로트바르트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켜 로트바르트가 단순한 악마가 아닌 왕자의 또 다른 내면임을 보여주는데, 그런 면에서 1막 후반에 등장하는 왕자와 악마가 함께 추는 ‘그림자 춤(The Shadow Dance)’은 다른 버전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이밖에 오데트 공주와 지그프리트 왕자가 처음 만나 추는 1막 2장의 ‘아다지오 파드되’, 오데트 공주 역의 주역 무용수가 섹시한 흑조 오딜로 변신하는 2막 결혼식 장면 등이 백미로 꼽힌다.

극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음악, 의상, 무대

이번 작품에서는 ‘라 바야데르’, ‘지젤’, ‘호이 랑’, ‘해적’ 등 다수의 국립발레단 레퍼토리에 의상 디자이너로 참여하며 국립발레단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루이자 스피나텔리(Luisa Spinatelli)가 의상과 무대 모두를 새롭게 디자인했다. 또한 김인규 작곡가가 작곡 및 편곡에 참여하여 각 캐릭터와 장면의 분위기, 극의 감정 등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음악으로 작품의 감동과 풍미를 더하였다.



© 국립발레단

세계가 인정한 아티스트들과의 만남 2024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K-클래식의 열풍이 뜨겁기만 하다. 최근까지 계속되는 월드 콩쿠르 우승 행렬에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수치상으로도 본다면 클래식 변방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이 고전 음악의 심장인 유럽의 연주자들보다 더 많은 입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지난 2022년부터 선보여온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는 세계가 인정한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연주와 함께 세계 클래식의 최신 흐름을 만날 수 있어 음악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올해 세 번째 시즌에서는 2001년 한국인 최초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2022년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플루트 부문 한국인 최초 우승자 김유빈이 무대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다. 더불어 1993년 프랑스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 콩쿠르 우승자 베이스 연광철과 2017년 한국인 최초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2014년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황수미와 2012년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 1위 없는 2위 피아니스트 안중도 등 최고의 성악가와 피아니스트가 펼치는 특별한 만남도 준비되어 있다.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 I

2001년 한국인 최초 롱-티보 국제 콩쿠르 우승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3월 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2024년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의 시작은 클래식 아티스트 계의 1세대 아이돌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장식한다. 1996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2위에 입상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임동혁은 2000년 이탈리아 부소니 국제 콩쿠르와 일본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2001년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수상과 더불어 5개 상을 휩쓸며 세계적인 연주자로 주목받았다. 이후 200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3위, 2005년 제15회 국제 쇼팽 콩쿠르 2위 없는 3위에 입상했으며, 2007년에는 제13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1위 없는 공

동 4위를 수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 석권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동혁은 뉴욕 링컨센터,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살 플레엘,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도쿄 산토리홀 등 전 세계 주요 공연장 무대에 올랐으며, 샤를 뒤투아가 지휘한 NHK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이끈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이르지 벨로홀라백 지휘의 BBC 심포니, 마이클 틸슨 토마스 지휘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2022/23 시즌에는 데뷔 20주년 기념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쇼팽 LP음반 발매를 기념한 리사이틀을 가지기도 했다.

클래식 아티스트계의 1세대 아이들

임동혁은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2001년 클래식 레이블의 명가 EMI를 통해 데뷔 음반을 녹음하고 이듬해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 상’을 수상했다. 이어 2집 음반으로 프랑스의 ‘쇼크 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 발매한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3집 음반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다. 2015년에는 쇼팽 프렐류드 전곡으로 4집 음반을 발매, 그라모폰과 BBC 매거진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BBC 심포니오케스트라,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작업한 5집 음반 그리고 2022년 슈베르트 후기 소나타 2곡을 녹음한 6집 음반까지 발매하는 음반마다 평론가들과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특히 임동혁은 2002년 국내에서 가진 첫 독주회에서 마치 아이돌 콘서트장을 연상시키는 듯한 음악팬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내며 단숨에 클래식 스타로 떠올랐다. 그의 등장으로 클래식 애호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기존에 없던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면서 지금의 클래식 열풍을 이끄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음악적 뿌리 ‘쇼팽’과 ‘러시아’로 관객과 만난다

10세 때 러시아로 이주,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하며 누구보다 깊숙이 러시아 음악을 습득한 임동혁은 스스로 ‘Made in Russia’라고 말하곤 한다. 또한 쇼팽, 슈베르트 등 낭만주의 작곡가의 곡 해석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쇼팽 스페셜리스트’로도 불리는 임동혁은 이번 무대에서 그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한 음악적 바탕이자 뿌리인 ‘쇼팽’과 ‘러시아’를 테마로 관객과 만난다. 쇼팽의 발라드 전곡 연주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프로코피예프 ‘전쟁 소나타’라 불리는 3개의 소나타 중 제7번과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제2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프로코피예프 소나타 제7번은 임동혁이 ‘한때 험기 넘치던 시절에 제18번’과도 같은 곡이라 언급한 작품으로, 그가 어린 시절 여러 콩쿠르에서 연주하며 화제가 된 작품이다.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제2번은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꼽혔던 라흐마니노프가 자신의 비르투오조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곡으로, 테크닉적으로나 음악적으로 가장 어려운 곡 중 하나로 꼽힌다.

“예전에 패기만만했던 시절 연주했던 곡들은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이번에는 무언가 그때와는 또 다른 더 많은 콘텐츠를 담고 또 다른 스토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이번 무대는 임동혁에게 음악가로서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는 중요한 한 지점으로, 그 어느 때보다 그가 들려줄 연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 II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 콩쿠르 우승자 연광철,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우승자 선우예권과 만나다

연광철&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3월 13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한국 최고의 베이스와 피아니스트가 만났다. 베이스 연광철이 노래하고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연주하는 특별한 듀오 무대가 2024년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펼쳐진다.

현존하는 최고의 베이스 연광철

바이로이트가 사랑한 성악가, 현존하는 최고의 베이스 연광철은 1993년 파리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1993-94 시즌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 오페라극장 솔리스트, 1994년 베를린 국립 오페라극장 솔리스트로 2004년까지 활동하며 모차르트 '마술피리', '돈 조반니', '피가로의 결혼',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벨리니 '노르마', 베르디 '돈 카를로', '아이다', '맥베드', '리골레토', '운명의 힘', '오텔로', 바그너 '탄호이저', '트리스탄과 이졸데',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등에 출연했으며 알반 베르크 '보체크', 드뷔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마이어어버 '악마 로베르트' 등 700회 이상의 무대에서 폭넓은 오페라 레퍼토리를 소화했다. 특히 1996년 독일 베를린 국립 오페라극장에서 함께 활동하던 다니엘 바렌보임의 권유로 세계적인 음악 축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데뷔한 후,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들로 바이로이트에서만 150회가 넘는 공연을 하며 바그너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

독일 정통 예술가곡 '리트'의 거장이기도 한 연광철은 2018년 독일 베를린 국립극장에서 궁정가수를 뜻하는 '캄머쟁어(Kammersänger)' 칭호를 받았으며 빈 국립오페라, 런던 코벤트가든, 밀라노 라 스칼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파리 바스티유, 마드리드, 뮌헨, 함부르크, 부에노스아이레스 콘론 등 세계 유수의 오페라 극장에서 다니엘 바렌보임, 크리스티안 틸레만, 파비오

루이지, 주빈 메타, 정명훈 등 명지휘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다.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자리매김한 선우예권

2017년 북미 최고 권위의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선우예권은 ‘변함없고 한결같이 우수함’(인터내셔널 피아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둥과 같은 종합적인 테크닉을 구사하는 피아니스트’(시카고 트리뷴)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파워풀함과 비르투오소적인 면모를 보이는 동시에 ‘음악의 진실되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는 그는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선우예권은 이미 앞서 2015년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2014년 방돔 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 수상으로 우리 음악계를 놀라게 한 바 있으며, 2013년 샌다이 음악 콩쿠르 1위, 2012년 윌리엄 카펠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플로리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무려 8회에 달하는 국제 콩쿠르 입상 경력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워싱턴 챔버 오케스트라, 덴마크 로열 오케스트라, 덴마크 라디오 오케스트라,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휴스턴 심포니,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샌다이 필하모닉, 로열 스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 III

황수미&안종도 듀오 콘서트

6월 1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찬란하고 매혹적인 목소리의 소프라노 황수미와 섬세하고 열정적인 터치로 객석을 매료시키는 피아니스트 안종도가 2024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세 번째 주인공으로 함께 무대에 선다. 황수미는 2014년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러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피아니스트이자 하프시코디스트인 안종도는 2012년 프랑스 파리의 롱-티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 및 최고 독주자상, 최고 현대작품 해석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후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부터 슈만, 말러, 베르크, 코른골트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코티쉬 내셔널 오케스트라, 포트워스 심포니, 몬트리올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카네기홀, 위그모어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엘프 필하모니, 파리 코르토홀, 도쿄 하마리큐 아사이홀, 아사펜 부르크 시립극장 등 유명 공연장 무대에 올랐다.

베이스 연광철이 노래하고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연주하는 슈만

연광철과 선우예권의 만남은 2022년 6월 세종문화회관 체임버시리즈 ‘디어 슈베르트’ 이후 두 번째다. 첫 만남은 공연 라인업에 연광철을 발견한 선우예권이 연광철에게 파트너를 자청하며 성사됐다고 한다. 2년 만에 다시 함께하는 이번 무

대에서는 쇼팽과 함께 낭만주의 음악을 이끈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을 조명한다. 1부에서는 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16편의 시에 음악을 붙인 ‘시인의 사랑’을 들려주며, 2부에서는 선우예권의 독주로 슈만이 연인 클라라를 얻은 기쁨과 사랑을 담은 ‘다비드 동맹 무곡’에 이어 가곡 ‘내 고뇌의 아름다운 요람’, ‘나의 장미’, ‘헌정’ 등 슈만의 대표곡을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한다. 특히 낭만주의 예술가곡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슈만의 대표적인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은 성악곡임에도 연주자들에게도 사랑받는 작품으로, 피아노의 역할이 반주에 그치는 것이 아닌, 노래와 상호 작용하며 음악을 완성시킨다. 그런만큼 이번 무대에서 연광철과 선우예권이 그려낼 사랑 이야기에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8월 28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5만원, S석 3만원

2024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마지막 무대는 한국 관악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유빈이 함께 한다. 2014년 제69회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없는 2위 및 청중상 수상, 2015년 프라하 봄 국제 음악 페스티벌 콩쿠르 우승에 이어 2022년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플루트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함으로써 세계 주요 3대 콩쿠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며 현재 세계 음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김유빈은 2016년 12월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수석으로 전격 임명되어 유럽 무대를 거점으로 활동해오다 올해 1월부터 미 서부를 대표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수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음악적 고향인 프랑스 음악으로 프로그램으로 구성, 플루티스트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예정이다.



부산시립극단 제76회 정기공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3월 14일-15일 목-금요일 오후 7:30, 16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층 2만원, 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1998년 창단멤버로 지난 26년간 부산시립극단과 동고동락해온 정순지 무대감독이 6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연극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로 작별 인사를 전한다.

스스로 평생 연극인이라 말하는 정순지 무대감독은 그동안 부두연극단의 흥행신화로 남아있는 '19 그리고 80',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비롯하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환화여! 환화여!', '자물쇠는 빠꾸기 소리에 맞겠다', '망초꽃 향기' 등 휴머니즘이 강한 작품들을 꾸준히 연출해왔다. 2005

년에는 부산시립극단 제3회 정기공연이었던 '리어왕'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의 직무 수행 과정을 연구한 논문 <연극제작에 있어서 무대감독의 역할 연구: 부산광역시립극단 제3회 정기공연 '리어왕'을 중심으로>로 경성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정순지 무대감독이 각색과 연출을 맡은 연극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는 1800년대에 창작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로, 짙고 설득력 있는 플롯과 그 속에 녹아드는 날카로운 교훈적 메시지가 독특히 매력에 있는 작품이다. 평범한 농부 바흐는 굉장히 넓은 땅을 헐값에 판다는 유목민



연출 정순지

의 소식을 듣고 찾아간다. 하루 동안 밟고 돌아온 땅이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말에 바흐는 욕심을 부려 아주 먼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지만 너무 무리한 바람에 그대로 넘어져 죽게되고 결국 한 평 땅에 묻히고 만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는 톨스토이가 당시 러시아 평민들을 위해 쓴 작품이지만, 지금 현실의 많은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작품으로,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을 '땅'이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하여 결국 과도한 욕망의 끝은 파멸에 이르게 보여준다. 특히 정순지 무대감독은

"불교에서 말하는 탐(탐욕), 진(화), 치(어리석음)에 끌려든 인간을 풍자하여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관객에게 스스로 반문케 하려는 의도"로 이 작품을 선정했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욕망의 뒤에 오는 허무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현주, 황창기, 김은희, 이혁우, 염지선, 오희경, 채민수, 서보기, 이태성, 조정우, 박규한, 김성열, 윤영식, 이수현, 양희진, 전용균, 이소희 등 그동안 정순지 무대감독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부산시립극단 상임단원을 비롯하여 비상임단원들이 출연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3회 정기연주회

펠릭스

3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새봄이 시작되는 3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작품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멘델스존은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과 유복한 집안환경, 우아한 용모와 세련된 사교성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음악가로, 작곡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 지휘자로도 유명했다. 시나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고 영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라틴어까지 다양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다고 한다. 그런 그에 걸맞게 이름 ‘펠릭스(Felix)’는 ‘행운’이라는 뜻을 지녔다.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그의 작품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오늘날까지 즐겨 연주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백승현의 지휘로 멘델스존의 ‘튀 블라스’ 서곡을 시작으로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4’,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를 들려준다. 바이올린 협주곡 역사상 불후의 명곡으로 꼽히는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4’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첫 곡인 ‘튀 블라스’ 서곡은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의 희곡을 무대화한 연극공연을 위해 멘델스존이 3일만에 작곡한 작품으로, 비극에 어울리는 대형 스케일과 다양한 주제로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된다. 이어서는 연주되는 ‘바이올린



지휘 백승현



바이올린 이지혜

협주곡 작품 64’는 베토벤, 브람스와 더불어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이라 불리는 곡으로, 당시 슈만이 ‘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찬사를 보낼 정도로 아름다운 멜로디와 현란한 기교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협연자 이지혜는 1999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후 2004년 예후디 메뉴인 국제 콩쿠르 3위, 2005년 사라사테 국제 콩쿠르 1위, 2009년 레오폴트 모차르트 콩쿠르 1위,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3위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독일 아우스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최연소 악장을 거쳐 2015년 동양인 최초이자 오케스트라 역대 여성 최초로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제2바이올린 악장으로 임명되어 화제를 낳았으며,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 멘델스존이 이탈리아 여행 중 찬란한 태양과 화려하고 색채감 넘치는 자연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작품으로, 곡 전반에 기쁨과 생명력으로 가득차 있어 새봄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이다.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마티네 콘서트 I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팬데믹 여파로 중단됐던 마티네 콘서트도 4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4년만에 다시 돌아온 마티네 콘서트

브런치 콘서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한낮의 공연으로 호평받았던 마티네 콘서트는 올해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아 푸치니 오페라의 주옥같은 아리아로 꾸며진다. 우선 2024년 상반기에는 3월 15일 차세대 지휘자 차웅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이어 6월 28일 원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정주영이 지휘하는 KNN방송교향악단이 풍성하고 알찬 레퍼토리로 오전 11시의 행복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그 첫 무대인 3월 15일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소프라노 박하나, 김승리, 테너 신상근이 출연, 푸치니 오페라 ‘마농 레스코’, ‘잔니 스키키’, ‘라 보엠’, ‘투란도트’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 YTN 심정옥 아나운서가 해설을 맡아 공연관람의 이해를 돕는다.

차세대 지휘자 차웅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박하나, 김승리, 신상근이 들려주는 푸치니 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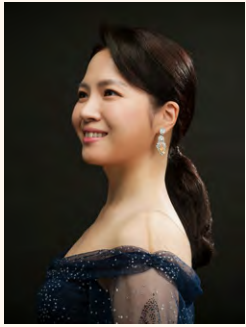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무대에 서는 지휘자 차웅은 브장송 콩쿠르, 말러 콩쿠르와 함께 세계 최고 권위의 지휘 경연으로 손꼽히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국제 지휘콩쿠르’에서 동양인 유일, 한국인 최초 우승(1위 없는 2위)한 지휘자로,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개최된 제11회 안토니오 페드로티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는 단 17명 만을 초대하는 결선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진출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콩쿠르 우승 후 이태리 루치아노 파바로티 극장과 니콜로 파가니니 극장 등에서 지휘하며 지휘자로서 첫발을 내디딘 후 수많은 오케스트라의 러브콜을 받아온 차웅은 특히 서울시립교향악단과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퇴근길 토크 콘서트’는 첫 공연 기획부터 참여하여 2년 동안 총 8회의 공연을 지휘, 프로젝트 안착에 기여했으며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을 출판하



지휘 차웅



부산시립교향악단



소프라노 박하나



소프라노 김승리



테너 신상근

고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서울시립합창단이 23년 만에 새로 녹음하는 대한민국 공식 애국가를 지휘하기도 했다. 차용은 2021년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의 피날레와 롯데콘서트홀 '클래식 레볼루션 2022'에 연달아 초대되어 코른골트의 '신포니에타'를 국내 초연으로 지휘했으며, 대관령겨울음악제, 평창대관령음악제, GS칼텍스 예울마루 개관 10주년 기념 공연에 초청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혹적인 음색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소프라노 박하나는 오페라 '라 보엠', '사랑의 묘약',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등 다양한 오페라에 출연, 다채로운 배역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2021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체부장관상, 2019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신인상 수상,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쿨 Great Lakes Region 우승, 코벳 오페라 콩쿠르 1위, 국제가곡콩쿠르 대상 및 청중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는 부산대학교 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소프라노 김승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뉘른베르크 음악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다수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마술피리'(독일 뉘른베르크극장, 예술의전당), '토스카'(세종문화회관), '수녀 안젤리카'(예술의전당), 베토벤 심포니 No.9(예술의전당), Auftritt in der 'Lange nacht der wissenschaft'(뉘른베르크 지식인의 밤)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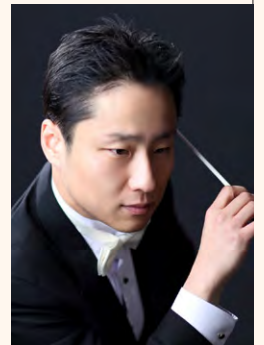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로미오와 줄리엣' 오프닝 공연을 통해 동양인 최초의 로미오로 뉴욕타임스의 극찬을 받은 테너 신상근은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의 에드가

르도 역으로도 '안정적이고 화려한 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올해 독일 베를린 국립극장 '투란도트', 라이프치히 국립극장 '카르멘', '마농 레스코', 그리스 아테네 국립극장 '토스카', 웨일즈 국립극장 '라 보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라 보엠', '진주조개잡이' 등에 설 예정이며, 현재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마농 레스코' 간주곡에 이서 소프라노 김승리가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들려주며, 테너 신상근, 소프라노 박하나가 '라 보엠' 중 '그대의 찬손', '내 이름은 미미'에 이어 '오 사랑스런 아가씨'를 이중창으로 들려준다. 이어서 '무제타의 왈츠' 중 '내가 거리를 걸으면'은 소프라노 김승리의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으며, '라 보엠' 중 '이별의 노래',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는 소프라노 박하나와 테너 신상근이 차례로 들려준다.

푸치니의 또 다른 오페라 아리아로 만나는 마티네 콘서트 두 번째 무대

한편, 6월 28일 열리는 2024 마티네 콘서트 두 번째 무대에서는 푸치니의 또 다른 작품인 '토스카', '서부의 아가씨', '나비부인'의 주요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다.



지휘 정주영, KNN방송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9회 정기연주회

고전적 낭만

3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낭만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슈만과 브람스의 작품으로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선사한다.

예술감독 부재하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는 부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피아니스트 김영호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시대를 관통하는 걸작으로 불리어지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과 브람스가 20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발표한 그의 첫 번째 교향곡인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지휘자 백승현은 어려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과 지휘전공으로 학사를,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악대학 대학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와 합창 지휘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독일 문화부 산하 독일 음악협회의 '지휘자포럼' 회원을 역임했으며 2021년에는 제7회 에른스트 폰 슈호 상을 공동수상했다. 그는 데트몰트시립극장 오케스트라, 로이틀링엔 필하모니, 바덴바덴 필하모니, 바트라이헨할 필하모니, 앙상블 무직파브리, 웨스트 보헤미안 심포니 등을 지휘하며 독일에서의 활동을 이어왔으며, 국내에서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비르투오지, 포항시립교향악단, 필하모니 코리아, DIO 오케스트라 등을 객원지휘하며 관객들을 만났다. 특히 2022년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작인



지휘 백승현



피아노 김영호

와이즈발레단의 <VITA> 국내 순회공연을 지휘했으며, 고전음악뿐 아니라 현대창작음악을 비롯한 각종 음악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대 작곡가, 현대음악 연주단체와 협업을 이어왔다. 백승현은 2023년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 겸 부산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첫 곡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은 슈만이 작곡한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으로, 슈만 특유의 서정적이고 시적인 피아노 독주곡과 달리 장중한 오케스트레이션과 피아노의 절묘한 조화가 이뤄지는 작품이다.

이날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피아니스트 김영호는 12세 때 이화 경향 콩쿠르 우승 후 도미, 뉴욕에서 콜롬비아 예비학교, 줄리아드 음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맨하탄 음대에서 엘바 반 겔더 장학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에 귀국, 경원대학교 교수를 거쳐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는 김영호는 국내 여러 학교 외에도 미국의 뉴욕 대학, 에모리 대학,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10회 세계 피아노 컨퍼런스, 스페인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필리핀 국립대학 그리고 2019년도 Kawai 피아노 회사 주최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마스터클래스를 갖는 등 연주자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후진 양성에 힘써왔다. 김영호는 그동안 이스라엘 텔아비브, 예루살렘, 이집트 카이로, 중국 베이징, 천진, 우한, 상해, 캐나다 토론토,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마드리드, 테네리페, 라스 팔마스, 미국 뉴욕 등지에서 연주했으며, 쿠바 국립교향악단, 스페인 테네리페 심포니, 라스 팔마스 심포니, 중국 구이양 심포니, 미국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페어뱅크스 교향악단, 불가리아 파자르지크 시향 등과 협연했다. 2005년부터 매년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창단 멤버로 활동해온 김영호는 올해 5월에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연주에 참여하며 10월에는 금호아트홀

초청으로 독주회를 가진다.

마지막 곡은 브람스 '교향곡 제1번'으로, 브람스 특유의 절제되고 단정한 오케스트레이션과 탄탄한 형식미를 제대로 보여준다. 발표 당시 당대 유명한 지휘자였던 한스 폰 뷔로가 '베토벤의 10번 교향곡'이라며 이 곡을 극찬했으나, 한편으로는 베토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브람스로서는 베토벤과 비교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교향곡 제1번'은 베토벤 이후 최고의 교향곡이라 불리며 오늘날에도 클래식음악의 주요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I '봄 인사'

3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을 한해 보다 다양해지고 특별해진 실내악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실내악 시리즈 두 번째 무대를 선보인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실내악 시리즈'는 정기연주회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다양한 실내악 작품들을 구성, 단원들과 조금 더 가까이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지난달 현악파트 단원들이 들려주는 '현의 울림'을 통해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이번 두 번째 무대에서는 '봄 인사'라는 부제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봄 향기 가득한 무대를 선사한다. 첫 곡은 슈만이 그의 아내 클라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헌정한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로망스 작품 94'로 아내에 대한 슈만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곡은 모차르트의 유일한 호른 오중주곡인 '호른 오중주 K.407'로, 호른과 바이올린, 두 대의 비올라, 첼로로

이루어진 독특한 편성의 작품이다. 평온하고 우아한 주제가 현악과 호른으로 반복되며,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지막 곡인 프로코피예프의 '오중주 사단조 작품 39'는 작곡가의 가장 급진적인 작품으로 평가될 정도로 불협화음과 불규칙한 리듬으로 가득한데, 오보에와 클라리넷,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더블베이스의 이례적인 악기 편성을 볼 수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4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 김경수 취임연주회 ‘내일’

3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11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로 취임한 김경수 지휘자가 3월 21일 취임 연주회 ‘내일’을 통해 부산시민과 처음 만난다.

김경수 부지휘자는 지난 1997년 부산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하고 그 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입단, 제42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에

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피리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지휘 전공),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한국음악학 석·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창원국악관현악단, 와라십포니 지휘자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휘자로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 설렘과 떨림을 담아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관현악에서부터 판소리와 래퍼, 로커와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동래학춤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등 보다 국악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사회는 ‘객석’ 편집장으로 있는 음악평론가 송현민이 맡아 공연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첫 곡인 ‘바르도’는 전래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주제 선율로 동학 농민군의 천도(遷度)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작품으로, 제목인 ‘바르도’는 살고도 죽은, 죽고도 살아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티베트 불교의 개념이다. 이어지는 판소리와 래퍼를 위한 국악관현악 ‘토끼 인당수에 빠지다’는 부산시립국악관



지휘 김경수



래퍼 정상수(우)와 블리스



가수 정홍일

현악단 수석 박성희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에서 국악이론을 전공한, 특별한 이력의 래퍼 정상수와 블리스(김남욱)의 만남이 펼쳐진다. 이 곡은 ‘심청가’와 ‘수궁가’를 엮어 만든 곡으로, 국악에 랩을 접목한 색다른 무대이다.

동래학춤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은빛 날개의 꿈’(박영란 곡)에서는 새로운 21세기의 동래학춤을 학무와 함께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래학춤보존회 회장인 이성훈을 비롯해 이광호, 이나현, 배철희, 엄선미(동래학춤), 한국 춤 프로젝트:itda 대표 박성아(학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정선희(구름)가 함께 한다. ‘싱어게인’으로 유명한 로커 정홍일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에서는 ‘지금 이 순간’, ‘뱃노래’, ‘바람의 노래’, ‘해야’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을 부산시립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이 시대 평범함 가운데 비범함을 지닌 영웅들에게 헌정의 마음을 담은, 2022년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위촉곡 ‘영웅을 위하여’를 들려준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대전과 안양의 청소년 합창단과 함께 하는 Friendly Concert

3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3천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창단 50주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024년 첫 무대로 'Friendly Concert'를 마련한다.

'Friendly Concert'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소년소녀합창단과 교류하며 합창을 통한 우정을 쌓아오고 있는

무대로,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 올해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첫 무대는 고석우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Hey look me over'(사이 콜먼 곡, 박지원 편곡), 'I got rhythm'(거쉬인 곡, 윤지영 편곡), '돼지 죽었네'(W. Ehret 편곡), 탱고메들리(김귀자 편곡) 등 재즈, 탱고 등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민과 만난다. 1982년 창단된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2014년 유엔 유네스코 산하 세계합창연맹(IFCM)에서 개최한 '세계합창 심포지엄 및 합창축제(WSCM)'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참가했으며, 201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잘츠부르크,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참가, 수준 높은 합창음악을 선보인 바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앞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했던 이건륜 상임지휘



지휘 고석우



지휘 이건륜



지휘 천경필

자가 합창단을 이끌고 있다. 1996년 1월, 경기도 최초로 창단된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02년 부산 세계합창대회 한국 최초 어린이 부문 금메달을 수상하고 2022년 제4회 제주 세계청소년합창페스티벌&경연대회 그랑프리, 2023 부산 국제합창제 청소년 및 민속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케냐민요인 'Jambo Bwana&Kumbaya'(조혜영 편곡)를 비롯해 '다시 일어나요'(이현철 곡), 'Eine Kleine Nachtmusik'(김은국 편곡), 'It's Lovely day Today'(어빙 벌린) 등 다채로운 곡을 선사한다. 천경필 수석지휘자가 이끄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헝가리의 현대작곡가 죄르지 오르반의 'Gloria'를 비롯해 '여우야'(이동훈 곡), 'Changes'(오드리 스나이더 곡), '함께'(윤학준 곡), '우리들의 세상'(조성은)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세 합창단이 함께 하는 연합무대로, 김준범 곡 '꿈꾸는 사람'을 통해 합창으로 하나되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4월 6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4만원, S석 2만원(16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중년의 인생을 유쾌하고 솔직하게 풀어낸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가 부산을 찾는다.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는 가족간의 소통 부재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외롭게 살아가는 중·장년층이 찝질방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부딪히고 소통하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작품이다. 요즘 중년층에서 ‘살어 말어? 도장 찍고 싶을 때 꼭 봐야 하는 연극’으로 평가받으며 관객들의 공감을 넘어 부부, 커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힐링극으로 모든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에서는 사춘기 아들과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갱년기의 미경, 늦은 나이에 허리 휘게 손자를 보면서도 큰소리 한번 못 치는 영자,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사는 듯한 은정, 자식 농사 잘 짓고 노후 걱정없이 잘 사는 듯 보이는 말복,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중수, 아내는 딸네 집으로 가고 홀로 빈집에서 강아지와 지내는 영호 등 저마다 다른 이유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년들이 등장한다. 동네 찝질방에서 만난 이들은

수다를 통해 각자의 고민과 삶의 애환을 털어놓고 이 과정 속에서 사람으로 상처 받고 사람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대본 집필과 연출을 맡은 김영순 극단 ‘나는 세상’ 대표가 전국의 찝질방을 돌며 실제 중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면서 지난 2013년 5월 초연 이후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부산공연에서는 2015년 초연 때부터 참여한 개그맨 이흥렬이 영호 역으로 또 다시 무대에 서며, 마당극, 뮤지컬, 연극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배우 우상민, 드라마 ‘막내먹은 영애씨’의 엄마 역으로 생활연기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배우 김정하,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이윤미, 드라마 ‘부부의 세계’, ‘신성한 이혼’ 등에 출연하며 인상깊은 연기를 선보인 배우 김태향, 그리고 개성있는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허윤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들이 출연하여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유쾌한 무대를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돌아온다**

일 시 | 3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2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5만5천원, S석 3만3천원(14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막걸리 한 잔에 진한 그리움과 위로로 담은 감동이 있는 연극 '돌아온다'. 2015년 초연 당시 제36회 서울연극제에서 우수상과 연출상을 거머쥐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연극 '돌아온다'는 이후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2017년 제41회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극 '돌아온다'는 바쁜 생활 속에 잠시 잊고 지냈던 그리운 사람,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작품으로, 김수로, 강성진 등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하며 매진 행렬을 이어오고 있다.

• 작/선육현 • 연출/정범철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70회
 감성 콘서트 **새봄맞이 콘서트**

일 시 | 3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VIP 12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
문 의 |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7787-3086



현재 부산시 비영리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새봄맞이 콘서트. 우리네 삶이 담긴 연주로 우리들의 감성을 깨우는 이번 무대에서는 손영채 지휘자가 연주 곡의 탄생 배경과 사연들을 소개하며, 클래식에서부터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가요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 지휘/손영채 • 바이올린/문수경
 • 소프라노/안젤라 강 • 바리톤/장철준
 • Voce di La Boheme/소프라노 박지은, 김보민, 이지유
 • 가수/서우리

아지무스오페라단 신춘음악회
The Best of Opera

일 시 | 3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사)아지무스오페라단 010-9550-4649



전문예술법인 아지무스 오페라단이 마련하는 신춘음악회. 'The Best of Opera'라는 부제로 유명 오페라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연출/이병용

- 피아노/최여진, 김소영
- 소프라노/이은미, 주선영, 한인숙, 양근화, 이지은, 이진영, 박현진, 이연진, 박해미, 정애린, 박나래
- 메조소프라노/박소연, 성미진, 손혜은
- 테너/임성규, 김준연, 김준태, 박성백
- 바리톤/최대우, 윤풍원, 이석영
- 베이스/박순기, 이기백

2024 BSO 솔로이스츠 체임버 시리즈

일 시 | 3월 6일~7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www.bso21.com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악장, 수석, 부수석으로 구성된 BSO 솔로이스츠가 2024년 새롭게 선보이는 체임버 시리즈 무대. 지난해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30주년을 기념하여 첫 만남을 가진 BSO 솔로이스츠는 이번 무대에서 연주자들의 집중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뽐낼 수준높은 앙상블 연주로 관객과 만난다.

6일(수) 시리즈I '목관 5중주&금관 5중주'
프로그램
 비제/오페라 '카르멘' 모음곡
 에발트/금관 5중주 제1번 작품 5
 그리브스/모차르트의 터키 락 맘보
 바버/현을 위한 아다지오 작품 11 등 수곡

쇼팽으로 만나는 지브리 앙상블

일 시 | 3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6만5천원, R석 5만5천원 S석 4만5천원, A석 3만5천원
문 의 | (주)스튜디오 지브리 02-2658-3546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쇼팽과 감성적인 애니메이션 음악으로 사랑받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음악이 만나 세롭게 펼쳐지는 '쇼팽으로 만나는 지브리 앙상블'. 우리에게는 드라마 '밀회',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의 오리지널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송영민이 해설과 연주를 맡고 국내외를 대표하며 활발하게 총합무진 중인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퍼스트앙상블(바이올린 임흥균·박진수, 비올라 이신규, 첼로 박근우)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쇼팽의 원곡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스튜디오 지브리 음악들을 앙상블 사운드로 만날 수 있다.



- 예술감독/오충곤
- 목관 5중주/이주형(플루트), 박시연(오보에), 백동훈(클라리넷), 양희경(바순), 이민정(호른)
- 금관 5중주/최혁준·김희수(트럼펫), 최창현(호른), 손무정(트롬본), 서영찬(튜바)

7일(목) 시리즈II '현악6중주&현악8중주'

- 프로그램**
 브람스/현악 6중주 제1번 내림나장조 작품 18
 멘델스존/현악 8중주 내림나장조 작품 20
- 예술감독/오충곤
 - 바이올린/김주영, 박은경, 진혜빈, 한유진
 - 비올라/박지수, 윤솔샘
 - 첼로/김새로미, 정지은



이서림 타악 독주회

일 시 | 3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이서림 010-9678-0130



독일 뮌헨 국립 음대 학사 및 석사, 프라이부르크 국립 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수 무대에서 활동해온 퍼쿠니스트 이서림 독주회.

이서림은 그동안 뮌헨 필하모니, 솔레스비히 홀슈타인 주립 오케스트라, 앙상블 레조난츠, TIMF 앙상블, 앙상블 블랭크, 소리퍼커션 등의 객원 연주자로 무대에 섰으며, 루체른 페스티벌 아카데미, Impuls 현대음악 페스티벌 등 다수 국제 음악제에 참여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마림바와 바이올린 듀엣곡인 마리오 까를의 'About Escher', 지그프리트 커터러의 'Dance of Akebono' 등 국내 초연곡을 비롯하여 다양한 곡으로 관객들에게 타악의 매력을 전한다.

- 바이올린/허준하

KNN방송교향악단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일 시 | 3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010-7990-9568



2016년 창단 후 부산, 경남 지역주민과 함께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창조 확대에 앞장서온 KNN방송교향악단이 2024년 올해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다양한 분야에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지휘자 서희태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의 대표적인 '나비부인', '라보엠' 등 두 작품의 갈라무대를 만날 수 있다.

- 지휘/서희태(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 연출/이효석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화이트데이 브런치 콘서트

일 시 |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선착순 100명, 자유석, 다과 제공,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마련하는 이색무대 '화이트데이 브런치 콘서트'. 사랑을 주제로 한 감미로운 음악과 토크가 결합된 오전 11시 브런치 로비 콘서트로, 소중한

사람과의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부산 성악계를 선두한 부산시립합창단 신규단원들의 열정넘치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 지휘/임희준(부지휘자) • 사회/김수영
- 소프라노/김하정, 방효은, 최현서, 손은경, 박성익, 김세진
- 알토/남지희, 김지윤, 김민지
- 테너/정은성, 김동준 • 베이스/이강호, 박동호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제13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일 시 | 3월 23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 장 료 | 초대(www.johnlee.co.kr 신청, 추첨 후 개별통지)
 문 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637-0125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며 의술과 음악으로 인류애를 실천했던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마련하는 '제13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이태석 신부는 대한민국 의사이자 가톨릭 살레시오회의 수도자 겸 성직자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수단(현 남수단) 톤즈(Tonj)에 선교사제로 파견되어 구호, 의료, 교육, 사회활동에 힘써오다 지난 2010년 대장암으로 선종했다.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참여로 이뤄지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국립경희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는 오충근과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독일 NDR 엘프필하모니오

한동일 김설화 피아노 콘서트

일 시 | 3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사제지간으로 지난 20년간 음악적 인연을 이어온 피아니스트 한동일, 김설화의 무대.

한동일은 지난 1965년, 한국인 최초 국제콩쿠르 우승으로 화제가 됐던 제24회 리벤트리트 국제 피아노콩쿠르 우승자로, 지금의 K-클래식의 서막을 연 대한민국 1세대 피아니스트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동일 교수의 제자로 인연을 맺은 김설화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 프랑스 파리 에콜노르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으며, 세계 유수 콩쿠르에 입상하여 연주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V.448' 듀오 연주에 이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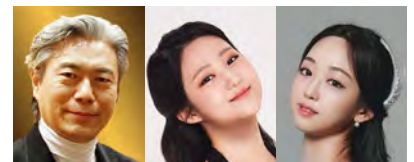
케스트라 플루트 수석 한여진, 하프시스 멤버로 국내외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프시스 황세희가 출연, 이태석 신부의 위대한 사랑과 그 뜻을 기린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서곡
 모차르트/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다장조 작품 299

로드리고/아랑훼즈 협주곡 2악장
 브리치알디/베네치아의 사육제 작품 78
 스메타나/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 예술감독/오충근
- 플루트/한여진 • 하프/황세희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루보체 레이디스 싱어즈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어려운 이웃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희망을 전하고자 2015년 결성된 루보체 레이디스 싱어즈의 무대. 루보체는 '루체'(LUCE)와 '보체'(VOCE)의 합성어로 '빛과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루보체 레이디스 싱어즈는 그동안 병원 로비 음악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음악으로 치유를 전하는 재능 기부 음악회를 열어오며 낮은 곳에서 함께 하는 부산의 대표 여성 합창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지휘자 권영기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유미,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게스트로 출연, 무대의 풍성함을 더한다.

- 반주/전미리 • 퍼커션/이영훈 • 사회/한태양

2024 제19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매직 판타지아 시즌2

일 시 | 3월 23일 토요일 오후 2:00, 5:00, 24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VIP석 7만원, R석 5만원
 문의 | (사)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조직위원회 626-7002



마술의 도시 부산을 마법처럼 물들이는 경이로운 마술의 세계 '제19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BIMF)'의 첫 번째 프로그램 '매직 판타지아 시즌2'.

지난해 '한가위 매직 판타지아'에 이어 마련되는 '매직 판타지아 시즌2'는 제19회 BIMF의 두 번째 시즌제 공연 프로그램으로, 화려한 볼 마술로 시작하는 오프닝 세레모니 '인도에서 날아온 인도마술사'를 시작으로 해산물마술사의 놀라운 퍼포먼스, 화려한 연출과 색다른 쇼맨십의 아슬아슬한 서커스매직, 관객과 함께 만드는 드로잉 매직아트쇼, 국내 최대규모 자이언트 별문쇼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트리오 피아체 연주회 왈츠와 변주곡

일 시 | 3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학구적이고 깊이 있는 연주 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피아니스트 박정희, 첼리스트 정운혜로 결성된 트리오 피아체의 무대. 트리오 피아체는 지난 2015년 결성된 후 그동안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대구가톨릭대 초청 콘서트, 서울 영산아트홀 전문연주자 시리즈, 아트뱅크코리아 20주년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오르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트리오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최고난이도 곡인 라벨의 '피아노 트리오 가단조'를 비롯해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K.423', 오펜바흐 '차클린의 눈물', 차이콥스키 '왈츠와 변주곡', 슈만의 '아베크 변주곡'을 들려준다.

이런 무대에서는 피아노 트리오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최고난이도 곡인 라벨의 '피아노 트리오 가단조'를 비롯해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K.423', 오펜바흐 '차클린의 눈물', 차이콥스키 '왈츠와 변주곡', 슈만의 '아베크 변주곡'을 들려준다.

2024 최현우 ANSWER

일 시 | 3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31일 일요일 오후 1:00, 5:00 대극장
 입장료 | 8만8천원, 6만6천원
 문의 | ㈜하늘이엔티(1688-6675)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넘버원 마술사 최현우의 마술인생 27년을 담은 자전적 무대 'ANSWER'. 특히 이번 무대는 마술인생 20주년을 기념한 'ASK' 공연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무대로, 그 당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관객과 함께 나누며 진행하는 스토리 매직쇼이다.

매번 새로운 시도로 마술의 패러다임을 이끌어온 최현우는 이번 무대에서 국내 첫 공개되는 마술부터 관객들이 열광했던 최고의 마술까지 전작들보다 한층 더 화려해진, 감동 그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무대를 선보인다.

아르떼 유스 창단 기념 연주회

일 시 | 3월 31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더뉴앙상블 070-8095-9426



아르떼 유스오케스트라 창단 기념 연주회로, 부산시지정전문예술단체인 더뉴 앙상블과 지역 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골드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K.492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가장조 제5번 K.219
 애니메이션영화 '코코' 중 'Remember me', 버랑 위의 포노

모차르트/교향곡 사단조 제40번 K.550

- 지휘/이동신, 권나은
- 바이올린/임가진

뮤지컬 알사탕

일 시 | 3월 30일-3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극장
 입장료 | 동등이석 6만원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 시 40% 할인)
 문의 | ㈜씽크브릿지 1533-7244



기발한 상상력과 넘치는 유머, 가슴 뭉클한 감동까지 어린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마법같은 이야기 '알사탕'.

2020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 백희나의 동명의 그림책을 무대화한 '알사탕'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을 건네지 못하는 9살의 동동이가 문방구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알사탕'을 구입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신기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다채로운 무대장치와 소품,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로 관객의 즐거움을 더해 준다.

게네랄파우제 3월 공연

일 시 |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2일 오후 9:30) 게네랄파우제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3월 무대.

1일(금) 오후 8:00 Music Producer Series 1 'Quincy Jones'



미국의 전설적인 음악 프로듀서이자 작·편곡자, 타미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재즈 뮤지션이자 그래미 레전드상 수상자인 퀸시 존스의 음악을 강hein 퀸트의 편곡으로 들려준다.

- 연주/보컬 정세미, 색소폰 손태호, 피아노 강혜인, 베이스 심규환, 드럼 홍영호

2일(토) 오후 8:00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들만의 특색있는 재즈를 들려주는 이달현트리오의 무대.

- 연주/기타 이달현, 베이스 박지원, 드럼 윤혁성

8일(금) 오후 8:00 시절 계절 1 : 오스트리아의 봄



2024년 게네랄파우제와 함께하는 송블리 트리오의 기획 연주. '시절 계절'은 계절에 따라 머무는 클래식 음악 레퍼토리를 송블리트리오만의 색깔로 들려주는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새봄을 알리는 다양한 음악과 서양 음악사에서 늘 중심이 되어왔던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들의 곡을 엄선하여 들려준다.

- 연주/클라리넷 유지훈, 비올라 김가민, 피아노 이해경

9일(토) 오후 7:00 Come Together



지난해 12월, 게네랄파우제에서의 공연을 위해 결성된 프로젝트 밴드 '김승모쿼텟'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Freeport'라는 팀명으로 이름을 바꾸고 마련한 무대.

보컬이 없는 인스트루먼트 밴드로, 팝 레퍼토리와 재즈 스탠다드 넘버 등의 곡을 재즈펑크, 라틴 등 다양한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들려준다.

- 연주/색소폰 김승모, 기타 최성준, 베이스 허진호, 드럼 황준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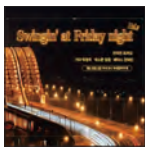
14일(목) 오후 8:00 화이트색소폰



재즈피아니스트 민주신이 매월 한차례 재즈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와 함께 그들의 음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는 월간 민주신 3월 무대.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색소포니스트 정준과 함께 커플들을 위한 로맨틱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15일(금) 오후 8:00 Swingin'At Friday night



진익진트리오가 준비한 금요일 저녁의 신나는 재즈 무대. 베이스트 진익진, 색소포니스트 정준, 기타리스트 탁경주가 스탠다드 재즈부터 리듬감 넘치는 연주를 들려준다.

16일(토) 오후 7:00 It might as well be spring



감성적이고 따뜻한 감동을 주는 최은아트리오가 새봄을 맞아 들려주는 봄의 향연.

- 연주/보컬 최은아, 피아노 장세연, 베이스 박경윤

22일(금) 오후 8:00 부산의 음악이야기



부산 하면 떠오르는 영화와 대중음악을 도담 앙상블의 연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낭만 가득한 추억 속의 부산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 연주/바이올린 김민화, 첼로 정혜주, 플루트 조다운, 클라리넷 강철주, 피아노 손안나, 작·편곡/강현민

23일(토) 오후 7:00 RE-Start



다섯 명의 피아니스트로 이루어진 무지카 아니베의 여섯 번째 정기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피아노/고민주, 박정연, 손유진, 이재은, 류수정

29(금) 오후 8:00 From Nature



홍영호 트리오 정규 3집앨범 발매를 기념하여 마련한 무대. 부산을 대표하는 색소포니스트 손태호와 트럼본니스트 심규성의 협연으로 홍영호 트리오의 이전 앨범과는 또 다른 색깔로 웅장하고 원초적인 재즈사운드를 들려준다.

3월 29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커플들을 위한 로맨틱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연주/드럼 홍영호, 베이스 신세영, 피아노 강혜인, 색소폰 손태호, 트럼본 심규성

에델현악사중주단의 두 번째 전국시리즈 슈만과 브람스 현악사중주 제1번

일 시 | 3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에델현악사중주단 010-7234-3996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활동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과 손혜림, 비올리스트 강수이, 첼리스트 김혜지로 구성된 에델현악사중주단의 두 번째 전국 시리즈.

팀명인 '에델'은 독일어로 '우아한' 또는 '품위 있게'라는 뜻으로, 클래식 음악이 지닌 고귀한 아름다움을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하게 전달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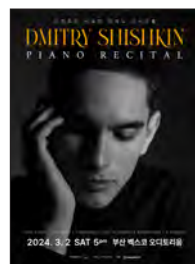
에델현악사중주단은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시리즈 완주를 통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주의 작곡가 슈만과 브람스의 현악사중주 제1번을 들려준다.

드미트리 시쉬킨 내한 리사이틀

일 시 | 3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 의 | ㈜또모 02-540-2706



타고난 음악적 섬세함과 예술성이 결합된 진지하고 헌신적인 피아니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드미트리 시쉬킨 내한 리사이틀.

드미트리 시쉬킨은 2019년 제16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2위 및 2018년 제네바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며 세계적인 연주자로 발돋움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첫 내한하여 클래식 유튜브 채널 '또모'를 통해 국내 음악애호가들에게 알려졌으며, 전석 매진을 기록한 첫 내한공연에 이어 2023년에도 전국 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다.

기타공연장

제4회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 정기연주회
드보르작 서거 120주년 기념
드보르작의 보헤미안과 자유

일 시 | 3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 010-5157-8871



다양하고 학구적인 레퍼토리와 음악에 대한 진지한 해석과 연구, 그리고 피아노로 표현될 수 있는 음악의 묘미를 선보이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의 정기연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으로, 음악적 이해와 해석, 가치관이 맞는 연주자들이 모여 지난 2022년 창단한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은 다양한 시대의 작품과 여러 장르의 연주를 통하여 청중과 교감해 왔다. '아인클랑'은 독일어로 '하모니, 조화'. 이번 무대에서는 체코의 국민음악가인 드보르작의 서거 12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대표곡들을 피아노 독주와 앙상블로 들려준다.

3월 스페이스움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27일(수) 오후 7:30
스페이스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움의 3월 무대.

8일(제533회) 윤민우의 더블베이스쇼 4th '초심'



아모스앙상블, 콘소노앙상블 음악감독이자 웁첸버오케스트라 수석단원,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앙상블 블루단원, Jouer Bass Ensemble 리더이자 Ensemble Fleur 멤버로 있는 베이시스트 윤민우의 무대.

- 피아노/조아라 • 클라리넷/차호철
- 첼로/황민혁

15일(제534회) 퓨전앙상블 하모니의 '영화-명곡 콘서트'

피아니스트 박정현을 리더로 바이올리니스트 홍지수, 첼리스트 정서은으로 구성된 퓨전앙상블 하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플란다스의 개

일 시 | 3월 16일 토요일 오후 2:00,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문 의 | ㈜조이컬쳐 070-7807-0701



클래식으로 듣는 명작극장,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세계명작 시리즈 '플란다스의 개'.

지난 1981년 TV에 방영되어 큰 감동을 선사했던 '플란다스의 개'는 화가가 꿈이었던 가난한 소년 네로와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개 파트라슈의 우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속현 클래식 큐레이터의 해석과 함께 네로가 그토록 보고싶어 했던 루벤스의 성장벽화와 작품들, 그리고 영상과 함께 만나는 일미터클래식앙상블의 연주로 원작의 감동을 전한다.

- 클래식 큐레이터/조속현
- 연출/임용순
- 연주/일미터클래식앙상블

모니의 무대.

'영화-명곡 콘서트'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울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제곡 및 테마곡을 아름다운 앙상블 연주로 들려준다.

22일(제535회) 빛 너머의 빛



건축가이자 아티스트리털러로 활동하는 정인지와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

'건축과 미술 속 빛'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 속 영감이 되었던 공간과 그림 속 다양한 빛에 관한 이야기와 연주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정혜리 • 피아노/민유솜

27일 테너 김정일 독창회 '한국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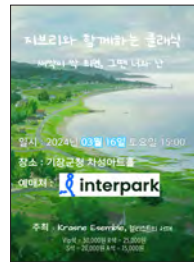


한국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밤으로 꾸며지는 테너 김정일 독창회.

- 피아노/김현정 • 클래식기타/김경태
- 베이스/김정대

지브리와 함께하는 클래식 - 부산
새싹이 싹 틔면, 그댄 너와 난

일 시 | 3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입 장 료 | VIP석 3만원,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소개하는 지브리 음악의 세계 '지브리와 함께하는 클래식'.

이번 무대에서는 '첼리스트의 서재' 공동대표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로와 피아니스트 박민희,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한운지, 소리모아 앙상블 단원 및 악장으로 활동하는 플루티스트 신혜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이석진이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를 비롯해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29일(제536회) Piano Conversation



대한민국 1세대 피아니스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피아니스트 한동일의 무대.

한동일은 지난 1965년 제24회 리벤트리트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1위 입상하여 한국인 최초 국제콩쿠르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며 이후 뉴욕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 로스엔젤레스 필하모닉,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로열 필하모닉 등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한국 피아노계의 레전드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프로그램

- 슈베르트/즉흥곡 작품 90 제3번, 즉흥곡 작품 142 제3번
- 슈만/어린이의 경정 작품 15
- 쇼팽/녹턴 작품 9 제2번·제3번, 판타지 작품 49 바흐-실러티/프렐류드 나단조

바로크 앙상블 동백 제4회 정기연주회
음악의 정원 시리즈 IV **물망초**

일 시 | 3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바로크 앙상블 동백 010-5474-3667



2022년 창단 후 바로크시대 음악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들려주고 있는 바로크 앙상블 동백의 무대.

정원 속 꽃들이 가지는 수 많은 이야기들을 바로크음악과 접목시켜 들려주는 '음악의 정원' 시리즈 네 번째 무대로,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곡을 바로크시대 악기와 연주로 들려준다.

- 소프라노/김민혜, 이민정
- 메조소프라노/이지영 • 카운터테너/김대경
- 테너/최원갑 • 베이스/박순기
- 비올라 디 감바/강효정 • 테오르보/윤현중
- 포지티브 오르간/아렌트 호르스펠트
- 리허설 반주 및 음악코치/신세라

예술감독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톡! 톡! Talk!**
실내악 페스티벌

일 시 | 3월 20일-22일 수-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K-컬처를 넘어선 해운대만의 독자적 콘텐츠 H(Haeundae)-클래식!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톡! 톡! Talk! 실내악 페스티벌'.

음악감독 금난새의 이야기(talk)가 있는 공연으로, 부산 출신의 예술인들이 펼치는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 공연이 나흘간 펼쳐진다.

20일(수) 프로그램

- 무디/불가리안 웨딩댄스
타레가/라트비아타 환상곡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작품 45 중 1, 2악장 등
- 진행/금난새 • 하모니카/이윤석
 - 기타/지익환 • 피아노/김기경

브릴란트 플루트 앙상블 창단연주회

일 시 | 3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브릴란트 플루트 앙상블 010-3146-8434



플루티스트 정애라, 김승연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브릴란트 플루트 앙상블 창단연주회.

정애라는 현재 UKO 아카데미, 다온다문화 청소년오케스트라, 동래초등학교, 분초초등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승연은 부경챔버오케스트라, VIVA 플루트앙상블, 아르케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있으며 소양오케스트라, 좌천초등학교, 동래여자중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봄의 시작과 함께 매력적인 플루트의 음색과 기교, 조화로운 선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연주를 들려준다.

- 출연/정애라, 김승연, 강시아, 김하빈, 강연지, 이승은, 이성은, 안민근
- 특별출연/강다애(오보에) • 피아노/박윤정

- 바이올린/김서현 • 피아노/고준성

21일(목) 프로그램

사라사테/카르멘 판타지
피아졸리/리베르탱고
거쉬인(만가니 편곡)/파리의 미국인 등

- 진행/금난새
- 바이올린/김현서 • 첼로/이일세
- 클라리넷/유지훈 • 피아노/박해림

22일(금) 프로그램

쇼팽/마주르카 작품 24
치마로사/오보에 협주곡 다장조
탄스만/소나타네 등

- 진행/금난새
- 오보에/윤은정 • 바순/김용원
- 튜바/문지용 • 피아노/조민현

23일(토)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5번 단조 1악장
피아졸라/사계 중 '겨울'
라흐마니노프/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2번 중 '타란텔라'

-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그대의 찬송' 등
- 진행/금난새 • 소프라노/구민영
 - 테너/김동원 • 피아노/강한솔, 정은혜

소리하나 성악연구회 창단연주회

일 시 | 3월 21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소리하나 성악연구회 010-2339-1973



지역의 순수 아마추어 성악가들로 구성된 소리하나 성악연구회의 창단 무대.

소리하나 성악연구회는 평소 국내외 가곡을 함께 공부하고 연주하며 음악적 실력을 쌓아오

고 있다.

- 협력교수/김태형 • 반주/전은령
- 소프라노/김미영, 박민재, 송순복, 오경숙, 이우진, 임정금
- 메조소프라노/김지현
- 테너/오석남, 오재욱, 이동춘
- 바리톤/김양선, 석현우, 황우상

라 트라비아타와 함께 떠나는
봄의 오페라 여행

일 시 | 3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중학생 이상 관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상세한 해설과 함께 오페라를 쉽게 감상할 수 있는 '라 트라비아타와 함께 떠나는 봄의 오페라 여행'.

이번 무대에서는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정혜리,

테너 박재화, 바리톤 최판수 등이 참여하여 오페라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 소프라노/정혜리, 김정상
- 메조소프라노/조은
- 테너/박재화, 이광진
- 바리톤/최판수, 김승현
- 베이스/이기백, 김영수, 이신혁
- 피아노/조아라 • 해설/김민성

부산CBS 창립 65주년 기념
2024 CBS 신춘음악회
‘봄’ 희망을 노래하다

일 시 | 3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문화유목집단동행 010-2026-8280



지역의 올곧은 소리와 복음 전파를 위해 걸어 온 부산CBS방송국이 창립 65주년을 맞아 마련한 2024 CBS 신춘음악회.

희망찬 새봄을 맞아 ‘봄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정두환이 지휘하는 부산CBS교향악단이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잘 스며드는 한국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을 시작으로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작 가곡 ‘진달래’까지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더불어 한국인이 사랑하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갈라 콘서트로 꾸며진다.

- 지휘/정두환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국악실내악단 도시락과 함께하는
토끼의 간을 찾아라

일 시 | 3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판소리 ‘수궁가’의 이야기를 그림과 음악으로 재해석한 국악실내악단 도시락의 ‘토끼의 간을 찾아라’.

이야기꾼이 전달자가 되어 공연의 호기심을 이끌고 이야기의 장면마다 그림이 함께하여 연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 누구나 알고 있는 ‘수궁가’의 내용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 타악/이지현 • 피리/태평소/이주현
- 대금/이수현 • 해금/강민희
- 가야금/고명진 • 신디사이저/최준원
- 재담/연희/심성보 • 판소리/이아름
- 세레나데/허석, 이정은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79회 정기연주회 **봄, 어느 멋진 날에**

일 시 | 3월 23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가 2024년 새봄을 맞아 마련하는 신춘음악회.

2009년 7월 창단한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소규모 앙상블 공연과 초청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정기연주회 등 연간 40회 이상의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세계적인 성악가 김동규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새봄의 서정을 노래하는 다채로운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예술감독, 상임지휘자/홍성택
- 협연/바리톤 김동규, 여성 솔리스트 앙상블 디케이올라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오페라떼 콘서트-이탈리아 나폴리편

일 시 | 3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으로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대문화회관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해설가 김성민과 함께하는 ‘오페라떼 콘서트’.

‘오페라떼’는 오페라(Opera)와 예술(Arté)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융합한 공연이란 뜻을 지녔다.

테너 이신범, 이태훈, 이형석, 오영민 등 4명의 테너와 함께 이탈리아 나폴리편 떠나는 이번 음악여행에서는 오페라 아리아를 비롯하여 한국가곡, 이태리가곡 등 다채로운 음악과 함께 나폴리와 주변 폼페이 유적지, 소렌토와 아말피 해변을 중심으로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 예술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 해설/김성민 • 피아노/오채영

김민주&임하나 제5회 피아노
듀오 연주회

일 시 | 3월 25일 월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김민주 010-9885-9237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민주, 임하나의 듀오 무대.

김민주는 독일 카셀시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로 있으며 프론티엄앙상블 대표, 피아노링크소사이어티 창단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임하나의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연 200회 이상 클래식 인문학 강연과 해설이 있는 연주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소프라노 김유진 독창회 **여류 작곡가의 밤**

일 시 | 3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김유진 010-5015-9215



루체살레 대표로 있는 소프라노 김유진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밀라노 G.Verdi 국립 음악원을 졸업한 김유진은 한-우즈벡 수교 30주년 기념 ‘춘향전’, 부산불꽃축제

기념 오페라 ‘투란도트’, 백스코 오페라극장 개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부산시립합창단 ‘카르미나 부라나’ 등 다양한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유진은 현재 경성대학교,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최초의 여성 오페라 작곡가 프란체스카 카치니를 비롯해 이원주, 세실 샤미나드, 에이미 비치 등 ‘여류 작곡가의 밤’으로 꾸며진다.

2024 라이징스타 데뷔콘서트 with 부산솔로이스츠

일 시 | 3월 31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솔로이스츠 010-8524-0069



부산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연주단체인 부산솔로이스츠가 지역의 신인연주자를 발굴하고 데뷔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열어오고 있는 라이징스타 데뷔콘서트 2024

년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박성완 명예교수의 지휘로, 부산음악계의 새로운 영 아티스트들이 연주자로서 데뷔 무대를 갖는다.

- 피아노/김리온(가양초등 5학년), 박은지(광주 예술중 3학년), 신유나(부산대 졸업), 김다윤(인제대 석사과정)
- 바이올린/박수연(화명중 2학년)
- 첼로/김하린(해화초등 4학년)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 부산 봄이 오면, 당신을 만나뵙길

일 시 | 3월 31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만 5세이상 관람)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매월 마련하는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3월 무대.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과 영화 OST, 그리고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Kranse Esemble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Kranse Esemble은 첼리스트의 서재 공동대표, 어연히(어디서든 '연'주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 대표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로를 리더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 첼로/이명로, 이석민 • 피아노/박민희
- 아코디언/심성훈 • 플루트/신혜원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일 시 | 4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독일 최정상급의 실내악 앙상블로 호평받는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스트링 콰르텟 부산공연.

1991년 첼리스트 테오브로스 주축으로 슈투트가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 창단한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스트링 콰르텟은 1993년 독일 칼스루에 실내악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실내악 단체 중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현악4중주와 슈만 피아노5중주, 피아졸라의 '탱고 발레'를 들려준다.

- 바이올린/안드레아스, 이수은
- 비올라/로렌츠 운거 • 첼로/테오 브라스
- 현연/김영실(피아노)

2024 케니 지 월드투어 내한공연

일 시 | 4월 11일 목요일 오후 3:30, 7:3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 VIP석 15만4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재즈 뮤지션 케니 지(Kenny G) 월드투어 내한공연.

부드럽고 낭만적인 선율로 세계를 사로잡은 케니 지는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세계 3대 색소포니스트로, 지난 1994년 제36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연주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약기 연주자 최초 7,500만 장이라는 음반 판매 기록을 세우며 4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케니 지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해석한 고전음악들과 자작곡들로 구성되어 발매와 동시에 큰 화제가 된 20번째 정규 앨범 'INNOCENCE' 수록곡을 라이브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연극 행오버

일 시 | 1월 5일(금)-3월 24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16세이상 이상 관람)
문 의 | ㈜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코믹 추리 스릴러극 '행오버'.

'행오버'는 지난 2014년 초연된 후 대학로에서 흥행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으로, 90분의 러닝타임 동안 단 한 순간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속도감 있는 전개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속취로 인한 기억상실이라는 색다른 소재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독보적인 캐릭터들이 펼치는 열연으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공간소극장 개관 20주년 기념 첫 번째 공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라

일 시 | 3월 1일(금)-9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6:00(일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공간소극장 010-5145-0999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공간소극장이 개관 20주년 기념공연 첫 번째 무대로 마련한 연극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라'.

공간소극장은 지난 2004년 개관 후 순수 창작 작품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한국연극에 한국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화두를 제시하며 한국 희곡의 명작을 발굴하여 무대화하는 작업을 병행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후 최대의 작가로 불리며 한국 현대희곡의 초석을 다진 최인훈의 동명의 희곡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라'를 선보인다.

- 작/최인훈 • 연출/전상배

기타공연장

연극 택시, 택시

일 시 | 3월 1일(금)-24일(일) 금요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평일 단체공연) 에저또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극단 에저또 852-9161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의 부부 택시 여행기 '택시, 택시'. 장애를 지닌 10대 소년부터 취업 준비에 허덕이는 20대,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30대 여자와 빛에 허덕이는 30대 남자, 그리고 비혼주의자이지만 외로운 40대와 젊은 나이에 할머니가 된 50대, 황혼에 찾아온 사랑에 행복해 하는 60대와 나의 부모일지도 모를 70대 치매 노인까지 다양한 사연을 지닌 승객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소소한 일상에서 오는 감동과 위로를 관객들에게 전한다.

- 작/김지연 • 연출/최재민
- 출연/최재민, 김지연

가족뮤지컬 피터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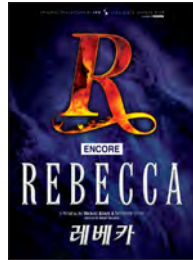
일 시 | 3월 10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4천8백원(예매시 적용)
문 의 | (주)희망극단 070-7311-3149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명작동화를 신나는 안무와 즐거운 음악이 함께하는 라이브 무대로 만날 수 있는 가족뮤지컬 '피터팬'. '피터팬'은 영원한 소년 피터팬과 함께 꿈과 환상의 세계 네버랜드로 떠난 웬디와 존, 마이클 세남매의 모험을 그린 판타지극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문 뮤지컬 배우들과 최고의 특수효과팀이 함께하는 무대로, 하늘을 나는 멋진 피터팬과 무대 위 대형 해적선까지 상상 속 무대가 관객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진다.

뮤지컬 '레베카' 10주년 기념공연 앙코르

일 시 | 3월 2일(토)-3월 10일(일)
매주 토-일요일 오후 2:00, 7:00
드림씨어터
입 장 료 |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문 의 | ㈜공연마루 1588-0766



탄탄한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새로운 밀리언 셀러 뮤지컬의 탄생을 알린 '레베카' 10주년 기념공연 앙코르 무대. 뮤지컬 '레베카'는 20세기 영국 최고의 작가 대프니 듀 모리에의 소설을 원작으로,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도 히치콕의 동명의 영화로도 유명하다. 특히 뮤지컬 '모차르트', '엘리자벳'의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와 극작가 미하엘 쿤체 콤비의 역작으로 유럽 뮤지컬의 레전드라 불리며, 강렬한 스토리와 중독적인 킬링 넘버, 명성에 걸맞은 완벽한 캐스트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연극 편의점 진상들

일 시 | 3월 14일(목)-7월 21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30, 5:00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 겪었을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극 중 주인공이 대신 속 시원하게 맞아치며 웃음과 공감을 주는 '편의점 진상들'. 주인공 상식은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여 가족들 눈치보기 바쁜 취업 준비생이다. 담뱃값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편의점 알바, 바쁘고 정신 없는 편의점에서 고군분투하던 중 상식의 눈에 들어온 로또 1등 중이. 로또 인생 한방을 꿈꾸는 상식 앞에 멘탈 탈탈 탈리게 만드는 진상들을 맞닥뜨리며 K손님과 맞서 로또 사수 대작전이 펼쳐지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격공할 수 있는 인생 실전 이야기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라이브 가족뮤지컬 프린세스 공주

일 시 | 3월 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좋은사람들 070-7807-0701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명작동화 속 공주들을 만날 수 있는 라이브 가족뮤지컬 '프린세스 공주'. 램프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일삼는 자스민, 물레바늘에 찢리는 백설공주, 독사과를 먹는 오로라, 남들과 비교만 하는 인어공주, 인어공주에게 나쁜 습관을 알려주는 신데렐라 등 '최고의 공주' 왕관을 두고 펼쳐지는 다섯 공주의 색다른 이야기가 신나는 노래, 춤과 함께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다섯 공주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어린이들에게 일깨워준다.

가족뮤지컬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일 시 | 3월 16일-17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 장 료 | 전석 7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45% 할인)
문 의 | ㈜더화랑이엔티 1800-6567



지구를 구할 영웅들과의 만남, 가족뮤지컬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평화로운 태초의 원시 지구시대 주인공 공룡들은 지구를 침략한 데보스군에 맞서 싸우다 멸종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현재, 또다시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 나타난 데보스군에 의해 인류는 공룡과 같은 멸종 위기를 맞게 되는데... 영원한 히어로 '파워레인저'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의 만남으로 역대 파워레인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는 엄청난 규모의 무대 세트와 관객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제작된 T자형 돌출무대로 어린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족뮤지컬 **고고다이노-고고킹의 귀환**

일 시 | 3월 16일-17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6만6천원(예매시 3만6천원)
 문 의 | ㈜엔투게더 070-4108-9999



어린이들에게 인기 많은 EBS 애니메이션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고고다이노-고고킹의 귀환'.

우르르행성의 공룡들을 위협하는 악당 미스터 블랙과 제니에 맞서 전설의 다이노스톤을 깨우고 최강의 합체로봇 고고킹을 부르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이 필요한데...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공룡들의 등장으로 어린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편, 고대 숲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공룡과의 우정을 통해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2024 2am Concert **One Take**

일 시 | 3월 23일 토요일 오후 6:00, 24일 일요일 오후 5: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전석 13만2천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17주년 기념 **봄을 알리는 포크 콘서트 - 남궁옥분, 임지훈**

일 시 | 3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VIP석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새봄을 맞아 마련한 봄을 알리는 포크 콘서트.

청량한 목소리로 198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남궁옥분과 서정성 충만한 특유의 허스키 보컬로 사랑받은 임지훈이 그 때 그 시절로 관객들과 감성여행을 떠난다.

곡(25일, 30일)
 일요특선/마스네 '베르테르'(3일), 발레실황(10일), 실내악 실황(17일), 실내악 실황(24일), 도니체티 '사랑의 묘약'(30일)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음악연주회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 장 료 | 10만원(2개월)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

되는 '클래식뮤직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음악 감상과 더불어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연주회 실황

문화와 예술로 만나는 부산 **3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3월 8일(금)·22일(금) 오후 2:00
 우등불(백산기념관 앞)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4일(월) 한국의 대중문화사(1)_박민수사건(1955)-미니스크트상륙기(1967)
 • 강사/김형찬(대중음악저술가)

8일(금), 22일(금)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장소: 우등불(3F)

11일(월) 시네마 언노운: 보이지 않는 영화들_영화 철선(2021, 76min)

• 강사/김지근(감독), 김영광(평론가)

18일(월) 들뢰즈의 리즘 이야기

• 강사/이왕주(부산대 명예교수)

25일(월) 롤랑 바르트의 매혹적인 글쓰기

• 강사/정병연(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춘특집-봄 주제 클래식음악/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봄' 등
 뉴에이지뮤직 작곡가 플로리안 크리스틀의 바케스트도르프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
 앙드레 류-암스테르담 공연 실황
 독일가곡의 매력 '베토벤-아델리아데, 슈만-시인의 사랑'

국민주의 음악특집 '드브르작의 생애와 음악'
 낭만주의 피아노 협주곡 '브람스, 쇼팽, 슈만, 그리그
 오페라감상실 '베르디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제193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봄, 꽃, 사랑의 추억 주제 시낭송회

일 시 | 3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화회 010-63670-0149

• 출연/정태운 시인 외 회원&초대 시인
 • 초청 음악가/테너 김이수, 시노래 가수 김모하

3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매주 월요일에는 고전, 낭만주의 관현악을, 금요일에는 프랑스 오페라 특집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프랑스 오페라 특집/들리브 '라크메'(1일~2일), 드뷔시 '펠레아스와 멜리장드'(8일~9일), 마스네 '타이스'(15일~16일), 마스네 '베르테르'(22일~23일), 오펜바흐 '지옥의 오르페'(29일~30일) 콘서트/브루크너 교향곡 제4번(4일, 9일), 모차르트 교향곡 제35번·제40번·바이올린 협주곡(11일, 16일), 쇤베르크 '정화된 밤'·R. 슈트라우스 '죽음과 변용'(18일, 23일), 바흐 '마태수난'

2024 상지인문학아카데미
정두환의 음본세 시즌2
음악으로 본 세상이야기

일 시 |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오후 6:30
상지건축 대학의실(중구 신동아빌딩 5층)
문의 | 상지건축 051-240-1529



문화유목민 정두환 지휘자와 함께하는 '음악으로 본 세상 이야기' 시즌 2. 2024년 상지인문학아카데미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베토벤, 슈베르트 등 거장들의 클래식, 엔니오 모리코네,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한국의 전통 악기인 대금 독주, 김광석과 양희은 등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과 철학, 역사, 사회과학 전반에 대해 이야기한다.

2월 28일(수) 고요하게_독주곡(Solo) 세계
3월 27일(수) 다정하게_듀오(Duo)

어느 봄날, 테레사 프레이타스 사진전

일 시 | 2023년 12월 23일(토)-
2024년 4월 21일(일) 동구문화플랫폼
입 장 료 | 일반(만 19세 이상) 1만5천원
어린이, 청소년(만 24개월 이상~만 18세 이하) 1만2천원
문의 | 동구문화플랫폼 070-7008-8905



포르투갈 출신의 사진작가 테레사 프레이타스 사진전. 테레사 프레이타스는 풍물, 정물을 매체로 사진, 영상, 스톱모션 등으로 표현하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지닌 사진작가로, 꿈 속 세계같은 파스텔톤 사진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입장마감 오후 6:00, 매주 월요일 휴관)

극단새벽 연극아카데미 2024 봄학기

일 시 | 3월 18일(월)-8월 18일(일)
효로인디아트홀
문의 | 극단새벽 245-5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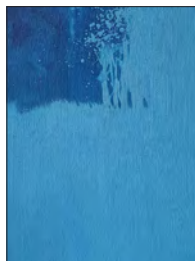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극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극단새벽이 2024년 봄, 새롭게 여는 연극아카데미. 극단새벽의 연극아카데미는 부산연극의 관객층 형성과 아마추어 연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자들이 연극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발견하며, 나아가 '연극예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연극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봄학기에서는 연극체험을 위한 사람들의 '연극교실_나도 배우다!', 사회문제, 공동체결과제를 연극으로 풀어내고 싶은 사람들의 '테마 연극교실', 그리고 '어린이 연극교실'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신청마감/3월 15일(금) 오후 7:00까지
- 신청방법/전화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bit.ly/연극아카데미) 후 방문접수

백승미 초대개인전 시선이 머물다

일 시 | 3월 2일(토)-3월 31일(일)
갤러리 한스
문의 | 갤러리 한스 784-0233



경기미술대전, 나혜석 미술대전, 대한민국수채화대전, 관악현대미술대전, 미르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NOMAD Art center in FRANCE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던 백승미 초대 개인전.

주체가 되는 대상에 주는 시선이 아니라 그 대상을 만들어 내는 그 이외의 것에 의미를 담아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백승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관람자들이 작품 속 여백의 시선을 따라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또 다른 시선'으로 조금은 쉬어가는 한 포인트가 되기를 희망한다.

- 전시 오픈닝/3월 2일 오후 3:00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개관 특별전
마! 썰리라! 야구도시 부산의 함성

일 시 | 2023년 12월 27일(수)-
2024년 3월 17일(일)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기획전시실
문의 | 부산근현대역사관 607-8001



전국에서 최고의 야구 열기를 자랑하는 '구도(球都)' 부산을 테마로 한 특별전.

'구도 부산, 타석에 오르다', '프로야구의 전성시대', '내 주머니 속 야구' 등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구의 도입에서 고교 야구와 아마야구 전성기를 거쳐 프로야구에 이르기까지 부산 야구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예바 알머슨 특별전 :

예바 알머슨, Andando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2024년 3월 24일(일) 피아크 2,3F
입 장 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
어린이 1만 3천원(예매시할인)
문의 | P.ARK 070-8693-9758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재개관 기념 특별전
'봄의 피크닉' 레플리카

일 시 | 3월 20일(수)-4월 30일(화)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 장 료 | 무료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재개관을 기념하여 열리는 특별전.

생동감 있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빛을 활용하여 작품의 생동감을 불어 넣었던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피사로, 모네, 르누아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레플리카 전시이다.

레플리카(Replica)는 '모방하여 만든 복제품'이라는 뜻으로, 기존 명화를 최대한 원작과 가깝게 복제하여 쉽게 만날 수 없는 세계 명화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은신계에서 내려오는 봄

정안나 시집 / 작가마을 / 1만2,000원

부산 출생으로 2007년 '시와 사상'으로 등단한 정안나 시인이 네 번째 시집을 냈다. 정 시인은 모더니즘시를 창작하지만 우리의 주요한 현실을 잊지 않는다. 정 시인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현상들을 마주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쓴다. 정안나 시세계에서 또 다른 주목할 부분이다. 이 시집에서 시 '부산이라는 가마퇴에는'이 인상적으로 와닿는다. "음소거해 주세요// 가마솔의 우암동은 소 막사가 많아 6·25 때 함경도민이 피난와 소 막사에 살기도 했네 배급의 밀가루는 고향의 밀가루 냉면을 만들어 그것이 밀면의 시작이라는// 밀면 냄새나는 비대면 강의// 나는 골목의 판잣집에 들락거리네 이북 사투리의 골목은 냉면을 잃기 전에 밀가루 반죽으로 뿔뿔 뭉치네 양복점 지나 보리밥에서 우암동 밀면 맛집으로 물밀면 비빔밀면 주물럭을 시작하네// (중략) 밀면은 음소거해 주세요//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는 피난민들의 약속이 있어 그 아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약속을 받아들이는 점집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 나쁜 쪽으로 흘러지 않았다 (하략)" 일제강점기부터 전쟁 전후의 부산 역사가 시 구절에 멋스럽게 녹아 들었다.

365일 민화일력

윤열수 지음 / 원더박스 / 2만5,000원

희망과 염원의 그림인 민화를 매일 한 점씩 감상하며 기운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366장의 민화와 그에 대한 해설을 실어 만든 책이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일 한 장씩 넘겨보는 형태이다. 366장인 이유는 4년마다 돌아오는 2월 29일도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도와 요일 표기가 없어, 오래도록 두고 볼 수 있는 책이면서 일력이다. 민화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윤열수 가회민화박물관장이 엄선한 366점의 민화 작품에 다정한 해설이 따라온다. 민화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관혼상제까지 민중의 삶과 함께 했다. 일력을 넘기다 보면 민화의 주인공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게 된다. 묘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용과 호랑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거북과 불로초, 과거 급제와 출세의 꿈을 담은 잉어와 쓰가리, 부귀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모란과 천도복숭아, 부부의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과 나비, 가족의 화목과 번영의 뜻을 담은 토끼와 수박 등 민화에 담긴 의미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그야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민족의 곁을 지키며 행운과 복을 가져다준 민화 속 주인공들을 총망라한 일력이다.

부산에서 찾아보는 이종섭흔적

정석우 지음 / 해피북미디어 / 1만9,800원

20세기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이종섭의 흔적이 부산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종섭은 1950년 12월 9일 6·25 전쟁을 피해 부산에 도착했다. 원산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란을 온 것이다. 1956년 서울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산, 제주도, 통영, 진주, 서울, 대구 등지에서 살았다. 그 기간 동안 부산에서 지낸 기간은 거의 2년이다. 그러나 부산에는 제주 서귀포의 이종섭 미술관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끌만한 것이 없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부산이라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정석우의 '부산에서 찾아보는 이종섭 흔적'에서 그 의문을 풀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저자는 2016년 봄, 우연히 부산 동구 범일동의 이종섭 거리를 마주하고 이종섭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피란민으로서 이종섭은 부산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화가로서 부산에서 무엇을 그렸을까. 가장으로서 생계는 어떻게 유지했을까. 저자는 책과 회고담, 기사 등의 자료를 모았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어 붙였다. 부산에서의 이종섭 흔적을 재구성한 것이다. 책을 읽는 동안 전쟁 중의 부산과, 이종섭은 물론 그와 함께 했던 예술가들의 흔적도 볼 수 있다.

MEMBERSHIP GUIDE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 (20%),

50명 이상 (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수(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수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 예매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Songs That Make Us Dance **종료**

2024년 1월 9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World Stars in Busan **종료**

2024년 1월 1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학교 실내악 축제 **종료**

2024년 1월 1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별이 빛나는 부산> **종료**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Perfect Tango:친친탱고×콰르텟BCMS×이승민 **종료**

2024년 1월 19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4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폐막연주회
앙상블오피스 초청연주회 종료

2024년 1월 20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4년 1월 27일(토) 종료
3월 23일(토), 5월 1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홍학의 무도회

2024년 2월 24일(토) 오전 11:00 종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연극 <돌아온다>

2024년 3월 1일(금) 오후 7:30, 2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4년 3월 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연광철&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종료

2024년 3월 13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2024년 3월 15일(금), 6월 28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2024년 4월 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게임OST 페스티벌

2024년 4월 1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30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악어의 양치시간

2024년 4월 20일(토)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미술관 옆 콘서트홀

2024년 5월 10일(금), 7월 19일(금), 9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2024년 5월 11일(토)~12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 OST 종료

2024년 6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중도 듀오 콘서트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종료

2024년 7월 12일(금) 오후 7:30, 7월 13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정기
임말섭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홍재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교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빌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안금주 하나유치원 원장
안진우 경성대학교 교수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성임 열가 대표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정명선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 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4 상반기 공연프로그램(1월~6월)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4. 1-6월

January - Jun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2024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4. 1. 10.(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지휘 | 세이코 김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바이올린 | 한수진 • 소프라노 | 박하나
- 바리톤 | 한규원 • 사회 | 박찬민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개막연주회 스테판 피 재키브 <Mozart & Mendelssohn Concertos with Busan Chamber Festival Orchestra>

문화 | 중극장 2024. 1. 5.(금)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바이올린 | 스테판 피 재키브
- 연주 | 부산체임버페스티벌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첼리스트 요나 김 & 발레리나 줄리아 로 <Songs That Make Us Dance>

문화 | 중극장 2024. 1. 9.(화)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첼로 | 요나 김
- 발레리나 | 줄리아 로
- 피아노 | 이윤수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Masters and Masterpieces I

문화 | 중극장 2024. 1. 12.(금)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바이올린 | 스테판 피 재키브, 대니 구
- 비올라 | 앤드류 링
- 첼로 | 요나 김 • 클라리넷 | 김윤아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학교 실내악 축제

문화 | 챔버홀 2024. 1. 13.(토) 5:00pm
전석 10,000원

- 출연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부산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술영재교육원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대니 구의 <별이 빛나는 부산> 토크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4. 1. 16.(화)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바이올린 | 대니 구 • 피아노 | 문재원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All about Tango: 이승민 x 친친탱고 x 콰르텟 BCMS

문화 | 챔버홀 2024. 1. 19.(금) 7:30pm
전석 20,000원

- 출연 | 팬텀싱어4 이승민, 친친탱고, 콰르텟 BCMS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폐막연주회 Masters and Masterpieces II <양상블 오페스>

문화 | 챔버홀 2024. 1. 20.(토) 5:0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백주영, 송지원
- 비올라 | 김상진 • 첼로 | 김민지
- 피아노 |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4. 1. 27.(토), 3. 23.(토), 5. 18.(토) 5: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해설 바이올린 | 박소연
- 연주 | 엘 콰르텟 외

※ 5세 이상 관람



연극 <돌아온다>

문화 | 중극장 2024. 3. 1.(금) 7:30pm, 3. 2.(토) 3:00pm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프로듀서 | 김수로 • 예술감독 | 신영섭
- 작가 | 선욱현 • 연출 | 정범철
- 출연 | 강성진, 김수로 등

※ 14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3. 5.(화)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피아노 | 임동혁

※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연광철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3. 13.(수)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베이스 | 연광철 • 피아노 | 선우예권

※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종도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6. 19.(수)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소프라노 | 황수미
• 피아노 | 안종도
※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4. 8. 28.(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플루트 | 김유빈
※ 7세 이상 관람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마티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3. 15.(금), 6. 28.(금) 11:00am
전석 20,000원
• 지휘 | 차웅, 정주영 • 해설 | 심정욱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KNN방송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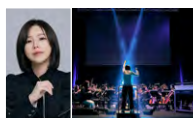
이 시대 중년들을 위한 유쾌한 위로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문화 | 중극장 2024. 4. 6.(토) 3: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작, 연출 | 김영순
• 출연 | 이홍렬, 김태항, 우상민, 김정하, 이윤미, 허윤
※ 16세 이상 관람



게임OST 페스티벌

문화 | 대극장 2024. 4. 13.(토) 5:00pm
• 지휘 | 진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5. 8.(수) 7:3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첼로 | 미샤 마이스키 • 바이올린 | 사샤 마이스키
• 피아노 | 릴리 마이스키
※ 7세 이상 관람



문화예술 '찐팬'을 위한 렉처콘서트
미술관 옆 콘서트홀

문화 | 중극장 2024. 5. 10.(금), 7. 19.(금),
9. 6.(금)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미술 해설 | 이주현
• 음악 해설 | 손지현
• 연주 |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 7세 이상 관람



한때 우리는 모두 '야구왕'이었다!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문화 | 대극장 2024. 6. 4.(화)~6. 9.(일)
※ 티켓 오픈 추후 공지



부산시민회관

EBS방영 원작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가 클래식 음악을 만나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I - 홍학의 무도회

시민 | 소극장 2024. 2. 24.(토) 11:00am
전석 30,000원
※ 전 연령 관람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우아한 발레의 완벽한 콜라베이션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시민 | 대극장 2024. 3. 15.(금) 7:30pm, 3. 16.(토) 2: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우리 아이 첫 클래식!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II - 악어의 양치시간

시민 | 소극장 2024. 4. 20.(토) 11:00am
전석 30,000원
※ 전 연령 관람



세계를 감동시킨 뮤지엄 판타지 어드벤처 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시민 | 대극장 2024. 5. 11.(토)~12.(일)
11:00am, 3:00pm
VIP 55,000원 R석 44,000원 S석 22,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스튜디오 지브리 OST와 Last Carnival,
Long Long Ago 등 Acoustic Café 대표곡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 OST**

시민 | 대극장 2024. 6. 15.(토) 5:00pm
VIP 77,000원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부산연극이 낳은 괴물신인 '열집우주'의 최신작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시민 | 소극장 2024. 6. 22.(토) 3:00pm
전석 20,000원
※ 12세 이상 관람



동화의 감동과 발레의 우아함이 환상적으로 그려진 명작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시민 | 대극장 2024. 7. 12.(금) 7:30pm, 7. 13.(토) 2: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 거인

문화 | 대극장 2024. 1. 19.(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정규빈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 <현의 울림>

문화 | 중극장 2024. 2. 6.(화) 7:30pm



제608회 정기연주회 보로딘을 위하여

문화 | 대극장 2024. 2. 27.(화)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최희준
• 바이올린 | 송지연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I <봄 인사>

문화 | 중극장 2024. 3. 8.(금) 7:30pm



제609회 정기연주회 고전적 낭만

문화 | 대극장 2024. 3. 22.(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김영호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2024. 4. 18.(목) 7:30pm
• 지휘 | 키릴 카라비츠



제61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키릴 카라비츠

문화 | 대극장 2024. 4. 19.(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키릴 카라비츠
• 첼로 | 문태국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4. 5. 10.(금) 7:30pm
• 지휘 | 백승현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줌인(Zoom-in) 1

문화 | 중극장 2024. 5. 24.(금) 7:30pm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대극장 2024. 6. 20.(목) 7:30pm
• 지휘 | 백승현



제611회 정기연주회 하지축제

문화 | 대극장 2024. 6. 21.(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백승현
• 기타 | 박규희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_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ABENDLIED 어둠을 밝히는 빛

문화 | 대극장 2024. 2. 29.(목) 7:30pm
• 객원지휘 | 그랜트 거슨(Grant gershon)



특별연주회 하이트데이 브런치 콘서트

문화 | 대극장 로비 2024. 3. 14.(목) 11:00am
• 지휘 | 임희준



제192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문화 | 대극장 2024. 5. 3.(금) 7:30pm
5. 4.(토) 11:00am, 3:00pm
• 지휘 | 이기선 • 연출 | 김지웅
• 출연 | 2310 밴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작곡 및 시놉시스 | 이진실



제193회 정기연주회 부산·창원 교류음악회 <베르디 레퀴엠>

문화 | 대극장 2024. 6. 27.(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부산시립무용단

제89회 정기공연
The Man_장부의 삶

문화 | 대극장 2024. 5. 17.(금) 8:00pm, 5, 18.(토) 5:00pm
• 안무 | 이정운



특별공연
이정운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4. 7. 26.(금) 8:00pm,
7, 27.(토) 5:00pm
• 연출, 진행 | 이정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24 신년음악회 <청룡이 나르샤>

문화 | 대극장 2024. 1. 24.(수)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문화 | 중극장 2024. 2. 27.(화) 11:00am
• 지휘 | 이동훈
• 진행, 토크 | 노주원 • 바리스타 | 전주연
• 노래 | BS부산오페라단 싱어즈 • 가수 | 최성수



제224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 김경수 취임연주회 <내일>

문화 | 대극장 2024. 3. 21.(목) 7:30pm
• 지휘 | 김경수
• 소리 | 박성희 • 랩퍼 | 정상수, 블리스
• 동래학춤 | 이성훈 외 • 구음 | 정선희
• 가수 | 정홍일



특별연주회
마리오네트 어린이 음악극 <영도의四季>

문화 | 중극장 2024. 5. 8.(수)~5. 9.(목) 11:00am

제225회 정기연주회
창단 40주년 기념 <불혹의 나이, 100년을 꿈꾸며...>

문화 | 대극장 2024. 5. 23.(목)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4. 6. 27.(목) 7:30pm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어린이왕자>

문화 | 중극장 2024. 2. 3.(토) 4:00pm, 7:00pm,
2. 4.(일) 1:00pm, 4:00pm
전석 10,000원
• 원작 | 생텍쥐페리 • 작사, 연출 | 김지용
• 작곡, 편곡 | 전현미 • 안무 | 홍충민



제76회 정기공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문화 | 중극장 2024. 3. 14.(목)~15.(금) 7:30pm,
3. 16.(토) 5:00pm
1층 20,000원 2층 10,000원
• 원작 | 레프 톨스토이 • 각색, 연출 | 정순지



제77회 정기공연
창작극장 <음악극 나혜석>

시민 | 대극장 2024. 5. 18.(토), 5. 24.(금)~25.(토),
5. 31.(금), 6. 1.(토) 평일 7:30pm, 토요일 5:00pm
전석 20,000원
• 대본, 작사, 연출 | 김지용 • 작사, 작곡, 편곡 | 백현주
• 안무, 움직임연출 | 홍충민 • 지휘 | 임희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4. 1. 27.(토) 5:00pm



제73회 정기연주회
펠릭스

문화 | 대극장 2024. 3. 19.(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4. 5. 21.(화) 7:30pm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프렌들리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4. 3. 30.(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3회 정기연주회
창작칸타타 Peace

문화 | 대극장 2024. 5. 24.(금) 7:30pm,
5. 25.(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 <예술의초대>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리뷰나 기대평,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글과 사진, 그림 등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주시면 엄선 후 지면에 게재해드립니다. 지면에 게재된 원고에 한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혹은 상품을 드립니다.
- ★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 ★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홍보마케팅팀(607-6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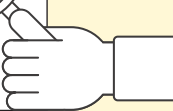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배시시TV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4. 3.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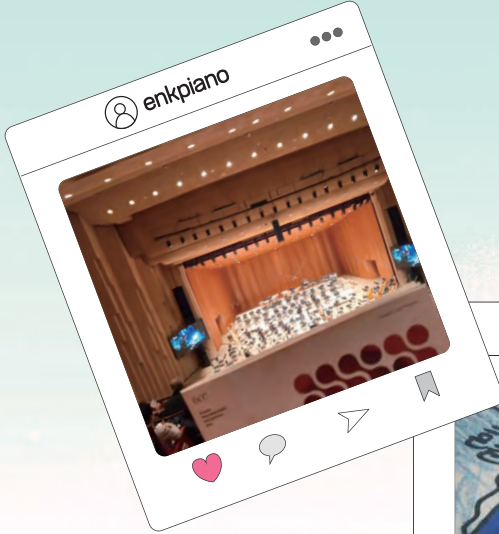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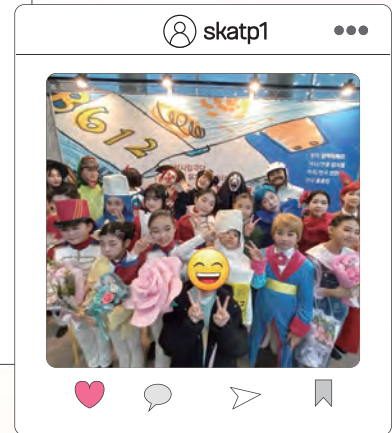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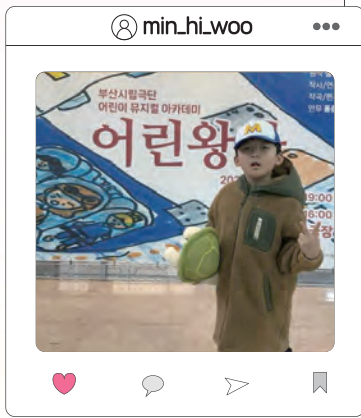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3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3월호



@youandme0514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4. 3.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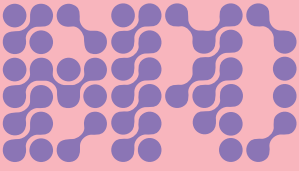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I 봄 인사

슈만 /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로망스 Op.94

모차르트 / 호른 오중주 K.407

프로코피예프 / 오보에, 클라리넷,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더블베이스를 위한 오중주 Op.39

2024년 3월 8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051-607-6000(ARS1번)

www.bscc.or.kr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연극

여보 나도 할말있어

2024. 4. 6^{SAT} 3: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출연 이홍렬 | 김태향 | 이상민 | 김정하 | 이윤미 | 허윤

작·연출 김영순 조연출 이수민 음악감독 이지용 무대디자인 정기준 조명디자인 장영섭 음향 박기만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제작 | 카나보씨상

| 티켓 | R석 4만원 S석 2만원

| 입장연령 | 16세 이상

|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대전과 안양의
청소년 합창단과 함께 하는

Friendly CONCERT



지휘 **천경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지휘 **고석우**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지휘 **이건연**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여우야_이동훈 / Gloria_György Orbán 등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다시 일어나요_이현철 / Eine Kleine Nachtmusik_김은국 편곡 등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Hey look me over_Cy Coleman 작곡·박지원 편곡 / 땡고메들리_김귀자 편곡 등

2024. 3. 30.SAT 5: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극단 제76회 정기공연

무대감독 정순지 정년퇴임 기념공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2024. **3.14.**(목) - **16.**(토)

평일 19:30, 토요일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층 2만원, 2층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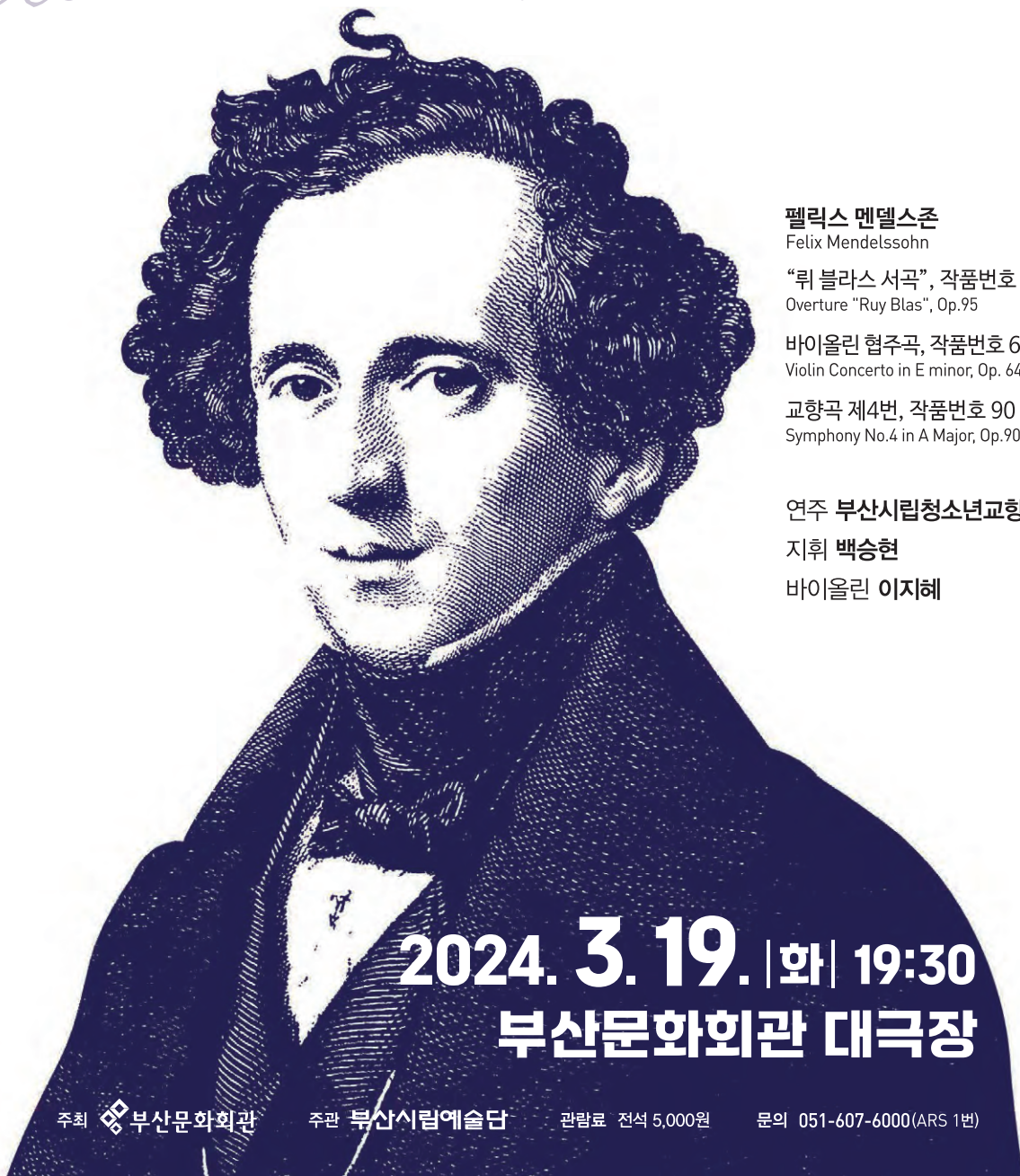
원작 L.N. 톨스토이 | 예술감독 김지용 | 각색/연출 정순지 | 조연출 이병길 | 무대디자인/제작 황경호 | 움직임연출 홍충민 | 조명디자인 곽동민 송희원 정강화
음악감독 이영재 | 음향감독 이호원 | 영상디자인 이현우 | 의상디자인 박선미 | 분장디자인 이지원 | 무대감독 안인석 | 기획/홍보 박지현
배우 이현주 황창기 김은희 이혁우 염지선 오희경 채민수 서보기 이태성 조정우 박규한 김성열 윤영식 이수현 양희진 전용균 이소희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 문의 051.607.6000(ARS 1번)

펠릭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3회 정기연주회

Felix Mendelssohn Bartholdy



펠릭스 멘델스존
Felix Mendelssohn

“뤼 블라스 서곡”, 작품번호 95
Overture “Ruy Blas”, Op.95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번호 64
Violin Concerto in E minor, Op. 64

교향곡 제4번, 작품번호 90
Symphony No.4 in A Major, Op.90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 백승현

바이올린 이지혜

2024. 3. 19. | 화 |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김경수 취임연주회

내일



지휘 김경수



Program

새이새야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바르도 (Bardo)

판소리와 래퍼를 위한 국악관현악
토끼 인당수에 빠지다

동래학춤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은빛 날개의 꿈

'싱어게인' 로커 정홍일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지금 이 순간 - 뱃노래 - 바람의 노래 - 해야

국악관현악
영웅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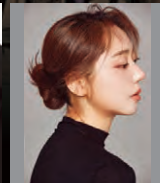
사회 송현민



판소리 박성희



래퍼 정상수 (with 블리스)



학무 박성아



동래학춤 이성훈, 이광호, 이나현, 배철희, 엄선미



구음 정성희



가수 정홍일

2024. 3. 21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20,000원 · S석(2층)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4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마티네 콘서트

Giacomo Puccini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
심정욱

프로그램
마농 레스코
잔니 스키키
라 보엠
투란도트



지휘 차 응



소프라노 박하나



소프라노 김승리



테너 신상근

2024년 3월 15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4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3.5 TUE 19:30

피아노 **임동혁** 리사이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6만원 | S 4만원 | A 2만원



*Dong-hyek
Lim*

II

3.13 WED 19:30

베이스 **연광철**
피아노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6만원 | S 4만원 | A 2만원



*Kwang-chul
Youn*



*Ye-kwon
Sun-woo*

III

6.19 WED 19:30

소프라노 **황수미**
피아노 **안종도**
듀오 콘서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6만원 | S 4만원 | A 2만원



*Su-mi
Hwang*



*Jong-do
An*

IV

8.28 WED 19:30

플루트 **김유빈** 리사이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 5만원 | S 3만원



*Yu-been
Kim*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